雲門

불기 2568년
가을호
통권 제169호

雲門寺僧伽大學

구름문을 펼치다

- 밤송이 '툭' 하고 터지듯, 이 가을 우리 마음도 '툭' 터지기를 / 화엄반 선혜
- 모든 것을 물들이는 계절인 가을, 일체중생의 마음에 불법이 물들길 / 화엄반 도솔
- 익어갈수록 아래로 내려간다. 수행의 본질을 일깨워준다. / 사교반 혜명
- 사교반은 능엄경에 물들어가는 단풍처럼 수행합시다 / 사교반 덕유
- 무거웠던 몸과 마음을 가을 구름처럼 가볍고 걸림없게! / 사집반 현소
- 천고마비의 계절, 나는 무엇을 살찌우고 있는가! / 사집반 명주
- 이 가을, 산에는 붉게 물들듯이, 우리 치문반은 중물이 들겠지요 / 치문반 도림
- 이 좋은 가을날, 육근이연六根怡然하면 행주적묵行住寂默하리라~ / 치문반 덕산
- 운문인들 모이는 이 가을! 우리도 즐겨봅세~ 으싸으싸 / 치문반 재하

불기2568(2024)년 통권 제169호 가을호

雲門

목차

02 호거산 운문사 — 구름문을 펼치다

04 죽림헌 — 복福 지으세요! 명성

06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 맑은 차 한 잔 올립니다 – 小祥을 지나며 – 영덕

08 교수논단 — 『운문구곡가雲門九曲歌』 연구 1 원범

14 학인논단 — 「입법계품」의 선지식 삼매에 대한 요약要約 1 도솔

20 외부기고 — Just Be, 是 준한

24 선지식 탐방 — 고요한 우레를 듣다 – 활성스님을 뵙고 – 선재

29 想 — 정定 혜명

30 수행의 두레박 하나 — 뭉밀이의 일상 현밀

32 수행의 두레박 둘 — 아르헨티나에서 한국, 운문사까지 혜산

35 풍경소리 — 공空 여연

36 수행의 두레박 셋 — Full-time 수행자 덕산

38 운문, 운문인 — 무상無常 속 풍성豊盛 편집부

40 차례법문 — 정진바라밀 혜석

45 이 한 권의 책 — 코스모스(COSMOS) 도선

48 운문논평 — 내가 만든 갈등 편집부

50 운문소식

51 등불 — 불전사물佛殿四物 – 법고法鼓

복福 지으세요!

명성 / 운문사 회주

이번 가을철은 운문사 창건 이래, 나아가 운문사가 비구니 도량으로 자리매김한 이래 또 하나의 큰 획을 긋는 불사인 역사문화관을 개관한 뜻깊은 철입니다.

운문사역사문화관은 운문사의 비구니 역사와 변화 발전된 운문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역사문화관은 그동안 내가 출판한 저서와 작품활동을 한 서예, 지승공예, 학인들의 법문집수 등을 낱낱이 기록한 노트 등을 볼 수 있는 상설전시실, 그리고 운문사승가대학을 졸업한 동문 스님들의 작품을 전시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학인 스님들뿐 아니라 운문사를 찾는 분들에게 좋은 강의를 제공하기 위한 강의실 등 승가대학에 부합하는 문화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50여 년을 운문사에서 많은 불사를 해오며 이 모든 불사를 원만히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대중 스님들의 원력과 무량한 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을 외호하며 수행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복福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복 짓는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너무 심하게 공부하다가 눈이 먼 아나율 존자가 "눈먼 나를 위해 바늘에 실을 꿰어줄 사람 없습니까?"라고 하였을 때 부처님께서 손수 실을 꿰어주셨습니다. 이에 아나율은 "부처님께서 쌓으신 한없는 공덕의 바다는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인데, 어찌 복 쌓는 일에 싫증 나지도 않고 만족할 줄도 모른다고 하십니까?"라고 하자 부처님께서는 "공덕의 과보는 참으로 깊고 또 깊으며, 실로 이 세상의 복 있는 사람 중에 나보다 더한 이는 없다. 그러나 나는 복 짓는 일에 대해 결코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부처가 되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쉬지 않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대답을 듣자 아나율 존자는 시력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지혜의 눈까지 갖추었다고 『대지도론』에서는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복이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고 깨달음에도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불교에서는 흔히 복을 짓는 방법으로 여덟 가지 복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전이란 '복의 씨앗을 심는 밭'이라는 뜻입니다. 여덟 가지는 불 · 법 · 승을 잘 공경하는 삼보공경三寶恭敬,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양부모孝養父母, 병든 사람을 잘 돌보는 급사병인給事病人, 외로운 이들을 도와 주고 보살펴 주는 구제빈궁救濟貧窮, 우물을 파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광로의정廣路義井, 개울에 다리를 놓아 건너갈 수 있게 하는 건조교량建造橋梁, 험한 길을 고르게 닦아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치평험로治平險路, 법회를 열어 누구나 법문을 들을 수 있게 하는 무차법회無遮法會입니다.

이는 평상시에 누구나 마음만 내면 지을 수 있는 것들로 복 짓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용맹스러운 장수[勇將]는 지혜로운 장수[智將]를 이기지 못하고, 지장은 덕 있는 장수[德將]을 이기지 못하고 덕장은 복 있는 장수[福將]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복이 모든 것을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나의 복전을 잘 가꾸어서 마르지 않는 복으로 깨달음에 이르길 바랍니다.

맑은 차 한 잔 올립니다

– 小祥을 지나며 –

영덕 / 운문사승가대학 학장

어젯밤 어머니 꿈을 꾸었습니다.
동해 바닷가에서 스치듯
나직하게 중얼거리시며
바다 위를 날아 보라색 물고기들을
물으로 몰아주시고 아무렇지 않게
초록색 버섯구름을 타고 떠나셨어요.

어머니, 당신이 주신 것
시지프스처럼 다시 일어서는 일상
어제와 내일과 다른 걸음들
하나를 위하여 전부를 버린 길
지금 여기 한 그릇 발우 밥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 자세를 고칩니다.

매일의 忍苦 속에서 다시 태어나듯
고통 속에서도 至善을 일구어내며
하늘 아래 까치발 들지 않고
땅 넓어도 금 긋지 않는 자
부단히 배우기를 놓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의 수행력을 꿈꿉니다.

有意味를 통해서 초월을 꿈꾸고
無意味를 통하여 근원으로 돌아가는 일
말로써 말 없는 곳, 분별로써 분별 떠난 곳
고요한 침묵 속 어둠을 걷어내는 명징한 새벽빛
앞을 지키는 일이나 뒤를 살피는 일도
본래 한 근원 함께한 그 자리

무량승이 일불승 본래불성의 공한 處
영원도 無常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 만나고 싶습니다.

一味의 法海에서 부서지는 파도로 만나고
물방울로 만나고 고래로 도다리로 만나고
우럭과 성게로 미역과 다시마로 만나고
더 쪼개어질 수 없는 흙과 모래와 바람으로 함께하십시다.

열려 있는 문으로 초이레 달이 지나갑니다.
긴 여름을 보내며 가을이 보내는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 끝에 있어도 아버지 생신날에는 다 모이거라
열흘 후 그날 저는 또 못 갈 것 같습니다.
어머니 소상에도 길 나서지 않고
부처님 앞에 오래 앉았다 돌아왔습니다.

세상이 꿈인 줄 알면 여읜 자리요
이미 꿈 깼으면 꿈이 이루어진 자리
그 밖의 것은 물결 따라 출렁이는 유희세간
각각의 업력이 모여 반짝이는 잔칫상
인연 따라 생멸하는 짭짤한 상차림

모든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하지만
그 가운데 제일 정성은 어머니 당신을 위함입니다.
一生의 살아오신 여정, 진정 변함없이 존경합니다.
끝없는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恨
우선은 총총 줄이고 옷깃 여미며
맑은 차 한 잔 우려 어머니 전에 올립니다.

사랑합니다.

甲辰年 음력 팔월 삼장원에서 晩學者 영덕 합장 삼배

『운문구곡가雲門九曲歌』 연구[1)] [1]

원법 / 운문사승가대학 교수

목차

Ⅰ. 서언

Ⅱ. 박하담의 [운문구곡가]
1. 입도차제入道次第의 조도시造道詩
2. 물아상득物我相得의 소요逍遙

Ⅲ. 손기수의 [운문구곡]
1. 음영성정吟詠性情의 산수시
2. 유유悠悠의 청취淸趣

Ⅳ. 결어

Ⅰ. 서언

주지하다시피 조선조 성리학은 사대부의 삶과 사상에 많은 영향과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주자의 사상과 학문을 본받고 실천하며 외연을 넓혔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구곡원림九曲園林을 경영하고 구곡가九曲歌를 짓고 구곡도九曲圖를 그리는 것이었다. 이는 주자가 무이산에 무이정사武夷精舍를 지어놓고 배를 타고 유람을 즐기며 각 풍광을 읊은 「무이도가武夷櫂歌」를 흠모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조선의 성리학자들에게 끊임없이 회자되며 그들의 문학에 영향을 주었다.[2)] 이들이 작시한 구곡가나 12곡 등은 「○○曲歌」라는 시의 형식으로 조선의 사대부, 특히 사림士林들 사이에서 재생산되고 차운되었다. 이렇게 차운시가 지어지게 된 까닭은 "하나는 자연 관조의 이념이요, 또 하나는 자연 관조의 미[3)]"라고 할 수 있다. 즉 구곡가에는 자연을 바라보는 사대부들의 이념과 문학관이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구곡을 경영하고 구곡을 읊은 시가詩歌 창작은 기록상으로 소요당消謠堂 박하담(朴河淡; 1479~1560)의 「운문구곡가雲門九曲歌」가 처음이다.[4)] 그는 43세(1521) 때 청도의 금천리에 소요당을 짓고 살면서 많은 시를 작시하였으며 1536년 청도군 운문산을 비롯한 동창천 일대의 빼어난 곳에 운문구곡을 경영하고 주자의 「무이도가」를 차운한 「운문구곡가」를 지었다.

「무이도가」의 형식을 빌려 운문산 일대를 노래한 또 하나의 작품은 생평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손기수孫紀秀가 지은 「운문구곡」이다. 그는 운문사 등 사찰과 운문산 일대의 경관을 읊은 시들을 많이 남기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각 곡曲의 배경이 되는 장소와

구곡원림의 경영양상에 대해서는 불문하고[5]『운문사지』에 실린 박하담의 「운문구곡가」와 손기수의 「운문구곡」을 살펴[6] 구곡을 경영하는 이념과 시적 형상화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산수 간이 우리의 선조들에게는 어떠한 의미였는지, 이들은 유람하면서 어떤 삶을 이루고자 하였는지를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선조들이 누렸던 운문구곡의 정신문화와 유행遊行문화를 오늘날 새롭게 해석하여 활용하고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하기에 앞서 학문적 연구는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나아가 다른 지방의 구곡은 이미 상당 부분 지역문화원 등에서 확인하고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운문구곡은 그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운문구곡의 지도를 설정하고 그 가치를 재현하는 데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II. 박하담의 「운문구곡가」

소요당逍遙堂 박하담(朴河淡; 1479-1560)[7]은 청도에 은거隱居한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20세에 무오사화를 겪으면서 난세에 은거하는 것이 재앙을 면할 수 있는 현명한 처세라고 여겨 43세에 소요당을 짓고 자연에 은거하였다. 그는 「입지잠立志箴」이나 「존심잠存心箴」을 저술하며 은거하는 자신의 사상이 유가의 도에 근본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아울러 자연에서 이치를 궁구

---

1) 이 논문은 『원불교 사상과 종교문화』,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23, 97에 실린 논문을 축약한 것임.

2) 당시 유포되고 있던 무이구곡도武夷九曲圖를 보고 무이정사잡영武夷精舍雜詠을 차운次韻하여 오언절구로 읊은 무이구곡을 최초로 작시에 응용했던 15세기 중엽의 서거정(1420~1488)을 필두로 16세기 퇴계, 하서, 포저, 고봉 등에 의해 차운되거나 비평되면서 조선조 시단의 한 주류가 되었다.

3) 최진원 「팔경과 구곡」, 『한중팔경구곡과 산수문화』, 서울:이회, 2004, 10쪽

4) 조선에서 가장 이른 시기인 15세기에 구곡을 경영한 사례로 박구원(朴龜元, 1442~1506)의 고야구곡(古射九曲: 밀양)과 박하담(朴河淡, 1479~1560)의 운문구곡(雲門九曲: 청도)을 든다. 서거정은 무이도가를 최초로 작시에 응용하였으나 구곡을 경영하지는 않았다.

5) 정우락, 「구곡원림九曲園林의 양상과 경북 구곡의 문화사적 의미」, 『儒敎思想文化硏究』, 대구: 유교학회 2019, 374~375쪽에서는 주자의 구곡시를 그대로 차운한 경우를 정격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된 것은 변격으로 분류하였다. 또 주자의 구곡원림을 원형 그대로 수용한 정격형과 이것을 모방하되 전혀 다른 측면에서 곡을 설정하여 경영한 변격형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았으며 박하담의 운문구곡을 정격형 구곡원림으로 분류하고 있다.

6) 두 작품 모두 운문사지 간행위원회, 『운문사지』, 성보문화재 연구원, 2018년을 저본으로 하였으며 시의 해석은 『운문사지』의 해석을 그대로 따르되 필자가 약간의 첨삭을 하였다.

7) 박하담은 자는 응천應千, 호는 소요당逍遙堂으로 1479년 청도군 북면 수아리水也里에서 태어났다. 1516년에 생원시에 합격하여 여러 직에 천거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20세 때에 동향 선배인 탁영濯纓 김일손金馹孫 등이 무오사화戊午士禍로 화를 당하고 41세 때에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 등이 화를 당하자 둔세遁世의 뜻을 굳혔다. 이후 삼족당三足堂 김대유金大有와 협력하여 사창社倉을 지어 백성에게 환곡법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는 운문산 아래 입암立巖의 눌연訥淵 위에 소요당逍遙堂을 짓고 남명南冥 조식曺植,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 경재敬齋 곽순郭珣 등과 교유하였다. 회재 이언적, 퇴계 이황 등과도 동문通文이 있어 서로 질의하고 토론한 영남의 거유巨儒로서 「춘추대일통론春秋大一統論」을 저술하였다. 저서로 『逍遙堂逸稿』 5권이 남아 있다. 1838년 후손 시묵時默, 정영廷瑛 등이 편집해서 간행하였으며 1875년 중간되었다.

하고 심성을 도야하며 소요하기를 원하였던 곳이 운문산 일대로 그의 시 「운문구곡가」는 이러한 지향점이 잘 드러나 있다.

1. 입도차제入道次第의 조도시造道詩

박하담은 운문산 아래에 소요당逍遙堂이라는 정자를 짓고 은거하면서 소요하였는데, 이는 주자가 만년에 벼슬을 버리고 무이산에 은거하여 학문에 정진하면서 무이산의 경관을 즐겼던 모습이기도 하다. 소요당은 「운문구곡가」의 서시序詩에 해당하는 시에서 「무이도가」에 차운한다고 밝히고 있다.

天開雲門地毓靈　하늘이 운문 열어 땅이 더욱 신령하니
箇中山水自然淸　이 중에 산수 자연이 맑아라.
逍遙笻屐尋眞境　지팡이 짚고 소요하며 진경을 찾아
歌和武夷曲曲聲　무이도가 굽이굽이 소리 화답하네.

위 제4구 「무이도가」의 각 곡에 대한 화답이라고 한 것은 주자의 학문과 삶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자신의 자연 관조의 이념이 주자에게 닿아 있음을 서시序詩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이 시는 총서總序에 해당하므로 운문구곡가 전반에 흐르는 이념이라 하겠다.

이 서시는 「무이도가」의 서시 운을 그대로 차운하였으며 시상 또한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무이산에 선령仙靈이 있다는 전설처럼 운문의 땅을 신령한 진경眞境이라고 하여 운문 골의 분위기와 풍광을 총체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마음의 본체를 '신령神靈과 허명虛明' 이라고 보고 있는데[8] 하늘이 열어 놓은 운문의 골짜기를 신령하다고 한 것은 자연을 통해서 마음의 본체인 신령함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보여 준 것이기도 하다. 이는 마지막 제9곡의 도원桃源과 별유천別有天으로 구체화시켜 연결하고자 하는 의도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一曲淸流一葉船　1곡이라, 맑은 물에 조각배 띄우니
源頭知有若耶川　근원에 약야계가 있음을 알겠네.
溯洄古渡茫然立　옛 나루터 거슬러 올라 망연히 서니
巖出雲端鳥叫烟　바위 구름 끝에 솟고 새 안개 속에 우네.

1곡은 아홉 구비의 시작 지점이다. 박하담이 배를 띄우고 유람을 시작하면서 운문곡의 근원인 약야계를 상기하고 있다. 약야계는 운문사를 둘러 흐르는 시내로 지금까지 여전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1구의 청류淸流는 배 띄우는 작자의 마음 상태를 표현한 것이며 2구의 원두源頭는 도의 근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二曲中開石鼓峰　2곡이라, 가운데 석고봉이 열리고
宛如雲樂舞昭容　마치 구름이 즐겁게 춤추는 밝은 얼굴과 같네.
吾人到此心無妓　내 이곳에 이르니 기생 생각 없어
夢外陽臺路幾重　꿈 밖 양대 길은 몇 겹인가.

「무이도가」의 옥녀봉을 읊은 2곡에 대한 차운으로 석고봉을 보면서 지은 시이다. 옥녀봉은 달비머리를 한 여인이 시녀를 거느린 형상으로 물가에 서 있는 바위이다. 주자는 '도인은 다시 양대의 꿈을 꾸지 않고 홍에 겨워 앞산으로 들어가니 푸르름이 겹겹' 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양대陽臺는 남녀가 정을 나누는 장소이다. 박하담은 "내 이곳에 이르니 기생 생각 없어 꿈 밖 양대 길은 몇 겹인가."라고 읊었다. 기생 생각이 사라지고 남녀의 정을 나누는 양대는 자신과는 무관한 무욕無欲의 상태가 이미 제2곡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는 오욕락에서 벗어난 인간의 참된 본성과 본질의 근원을 탐구하고자 하

는 박하담의 모습이 주자의 모습과 오버랩하는 부분이다. 이 2곡은 경치를 유람하는 것과 학문하는 것은 둘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작자의 의식이 담겨 있는 것이다.

三曲橫坡等藕船　3곡이라, 빗긴 언덕 신선 배 모양이고
仙遊物外晝如年　신선이 물외에 노니니 일 년이 하루네.
腸間五累今消盡　마음속 다섯 허물 이제야 씻어내니
寶鑑明明我最憐　밝고 밝은 마음을 내 가장 아끼네.

박하담은 3곡에서 배 모습을 한 언덕에서 신선처럼 물외物外에 노닐며 다섯 가지 허물을 다 씻고 밝은 마음을 회복해 그 마음으로 살고자 했다. 이 3곡에서 비로소 마음속의 다섯 가지 허물이 모두 없어지고 밝고 밝은 천성을 사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 3곡에서는 그저 횡파의 모습만을 제1구에서 그려내었을 뿐 모두 내면세계의 청정함과 심성 도야를 담고 있다. 여기에서 자연은 심성 도야의 장으로서 온갖 허물을 이미 씻어내고 명명明明한 자신의 마음 바탕에서야 비로소 경서를 읽고 심성을 도야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주자가 3곡에서 상전벽해가 된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상통하고 있다. 이러한 천지자연의 이치 속에서 노닐고 있는 작자의 시선이 4곡에서 표현되고 있다.

四曲環溪四面巖　4곡이라, 시내가 사방의 바위 둘러 있고
瑤花異草影纖纖　어여쁜 꽃 기이한 풀 그림자 길고 기네.
天門洞壑多奇絶　천문동 골짜기엔 절경이 많은데
石氣摩雲月印潭　돌 기운은 구름을 만지고 달은 못에 찍히네.

박하담이 비록 과거에 낙방하여 소요당을 짓고 은거하고 있으나 그의 삶이 외롭지 않음을 제4구에서 보여주었다. 돌 기운이 구름을 만지고 달이 못에 찍힌다는 표현은 작자가 풍광을 대하는 모습이다. 이런 자연의 관조를 통해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이 5곡에서 드러난다.

五曲山高地愈深　5곡이라, 산이 높고 땅이 더욱 깊어
烟霞多處露平林　안개 많은 곳에 평림이 빽빽하다.
焚香默坐看周易　향을 사르고 묵묵히 앉아 주역을 읽어가니
內院淸凉養性心　내원이 맑고 서늘해 심성을 기르네.

제2구의 평림平林은 무이산의 무이정사로 들어가는 초입의 지명이다. 앞의 두 구는 특별한 수사 없이 서경을 읊었고 뒤의 두 구는 자신의 구체적 행위를 드러내고 그 행위를 통해 심성을 기른다는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작자는 향을 사르고 주역을 본다. 내원은 도솔천兜率天에 있는, 미륵보살彌勒菩薩이 살면서 설법說法한다는 곳으로 현재의 내원암[9]이라 할 수 있다. 이 내원은 작자에게는 도학

8) 『逍遙堂逸稿』 권1, 「存心箴」, "天地賦我 萬物之靈 惟靈惟虛 心體本明"
9) 내원암은 고려시대 원응국사가 창건했으며 1694년 설송연초가 중창하였다.

적 심성을 기르는 곳이다. 작자는 도학의 이념인 양성養性의 시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분향焚香', '묵좌默坐', '주역周易' 등의 시어는 양성을 위한 수양의 방편임을 알 수 있다. 양성은 마음을 잘 보존하여 본성을 기른다는 '존양성심存養性心'을 뜻하는 것으로 도학자가 추구해야 할 덕목이다. 그는 「존심잠存心箴」에서 사람이 본성을 잃는 것은 존심양성하는 공부를 잊었기 때문이며 존심양성하는 방법으로 군자는 공경함을 쌓아 수양에 힘쓰는데 공경함으로써 내면을 바르게 하면 체와 용이 함께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10] 이 시는 이러한 박하담의 이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아래 6곡에서도 경물을 통해 심성 도야를 실현하고 있다.

六曲林扉對石灣　6곡이라, 숲의 문이 돌 굽이 마주하고
猿啼花笑不相關　잔나비 울고 꽃 피어도 서로 관여하지 않네.
生生物理觀天地　생생의 사물 이치 천지에 보이니
能使遊人倚櫂閑　유인으로 하여금 노에 의지해 한가롭게 하노라.

6곡은 석만을 읊었다. 시내가 온통 돌로 이루어져 있어 그렇게 명명한 모양이다. 여기서 그는 잔나비가 울고 꽃이 피어도 서로 관여하지 않는 연비어약鳶飛魚躍하는 자연의 이법理法을 터득하였다. 이 이법은 곧 생생生生이다. 이 생생의 물리物理는 주역 「계사전」에 "낳고 낳는 끊임없는 생성이 바로 역易이다."라고 하는 주역의 강령이기도 하다. 이 사물의 이치는 생성과 소멸의 두 측면을 다 아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6곡에서는 양성하고 난 이후의 경지인 생생의 이치로 천지의 사물을 대하며 노니는 작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때 작자가 느끼는 한가로움은 생생의 이치를 터득하고 얻어지는 삶의 한가로움이다.

七曲登臨下白灘　7곡이라, 올라보니 아래로 백탄이고
岩峴梵宇隔林看　우뚝 솟은 절간이 숲 너머에 보이네.
披雲巨手今安在　구름 헤친 큰 손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秋月精神水面寒　가을 달의 정신은 수면처럼 차가워라.

7곡은 백탄이 내려다보이고 높이 솟은 절간이 바라보이는 중간 어느 곳에서 읊고 있다. 절간이 보인다는 것으로 보아 거수巨手는 부처를 뜻한다. 구름이란 밝은 지혜를 가리는 번뇌, 즉 무명無明이다. 구름을 헤친다는 것은 삿된 것을 타파한 경지인 깨달음을 비유한 것이다. 무명을 타파한 거수는 보이지 않으나 그 맑고 맑은 정신세계를 가을 달에 이입시키고 있다.

八曲雲林合復開　8곡이라, 운림이 닫혔다 열리니
道人峰下小溪洄　도인봉 아래 작은 시내 여울지네.
此閑佳景人知少　이 한가한 아름다운 경치 아는 이 적으니
○○○翁伴詠來　늙은이 짝하여 읊조리며 오네.[11]

8곡의 도인봉은 봉우리 부분에 큰 바위가 비스듬히 드리워 있는데, 멀리서 보면 도인이 앉아 수련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도인봉을 바라보며 한가한 아름다운 경치를 아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자신의 정신세계를 알아주는 이가 드물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 8곡의 도인봉은 9곡과 연결된다. 닫혔다가 열린다는 의미는 작자의 마음이 도체道體인 신령神靈과 허명虛明에 가까워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도인이 사는 도인봉의 세계가 구곡의 도원이다. 8곡에서는 견처見處를 함께 나눌 지음자知音者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면 9곡에서는 별유천인 도원으로 이상향의 세계에 도달하였음을 드러내었다.

九曲山窮水瑩然　9곡이라, 산이 다하는데 물이 맑으니
游鱗潑潑躍平川　노는 고기 발바리 평천을 뛰어오른다.
漁舟此日桃源覓　고깃배 오늘 도원을 찾으니
別有雲門一洞天　달리 운문에 한 동천 있어라.

9곡에서는 산이 다한 지점에 평천을 설정하였는데 이 또한 「무이도가」의 시어에서 차용하였다. 지금까지 노닐던 곳은 결국 모두 도원으로 가기 위한 여정이었던 것이고 이 도원은 바로 운문동이다. 이렇게 이상향의 세계를 현실의 세계에서 그려냄으로써 지금까지의 유람은 모두 무릉도원을 찾아 들어가는 도학적 이념 추구의 여정이었다. 이 무릉도원을 박하담은 신선이 사는 별천지가 아니라 도학적 이념이 완성된 경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앞의 곡을 통해서 드러내 보였다. 이 여정을 조선의 산수로 표현해 놓고는 있으나 「무이도가」의 지명을 빌려오는 등 그 이념을 형상화하는 도구로써 「운문구곡가」를 지은 작자의 경도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상 박하담의 시적 이념을 살펴보았다. 16세기 사대부는 신유학의 이념이 강하게 작용하던 시기였다. 박하담 또한 이러한 시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인물로 그의 「운문구곡가」는 성리학적 이념으로 작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박하담에 있어 산수는 음영吟詠의 공간이자 소요逍遙하며 심성을 기르는 공간이기도 하기에 곡이 깊어질수록 양성도 함께 깊어지고 있다. 즉 서시에서는 신령한 진경을 찾아가기 위한 여정임을 밝히고 1곡에서는 도의 근원으로 비유한 구곡의 원두를 상기하였다. 2곡에서는 여색의 유혹을 극복하였고 3곡에서는 다섯 가지 허물을 씻어내었다. 4곡에서는 자연의 관조를, 5곡에서는 주역을 보며 심성도야를, 6곡에서는 생생의 이치를 천지자연을 통해 터득하였다. 7곡에서는 가을 달을 통해 맑은 정신세계를 보였고 8곡에서는 도인봉을 통한 자신의 견처를 보여주었다. 마지막 9곡에서는 이러한 여정이 모두 운문이라는 도원으로 귀결시키고 있다. 이렇게 박하담의 시는 입도차제入道次第의 조도시造道詩의 입장에서 지어진 시임을 알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

10) 『逍遙堂逸稿』 권1, 「存心箴」 "其存伊何 君子居敬 敬以直內 體用俱全"
11) 마지막 구절의 세 글자가 빠져 있다.

「입법계품」의 선지식 삼매에 대한 요약要約 [1]

도솔 / 대교과(4학년)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도표로 보는 「입법계품」 선지식들의 삼매 요약
Ⅲ. 나오며

Ⅰ. 들어가며

▫ 화엄경이란

화엄경의 정식 명칭은 『대방광불화엄경』으로 대승불교의 초기 경전이며 불타발타라가 번역한 60권 화엄경, 실차난타의 80권 화엄경, 반야삼장의 40권 화엄경의 총 세 가지 본이 있다.

현재 운문사에서는 실차난타의 80권 화엄경을 보고 있다.

80권 화엄경의 설주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며 좌우보처는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다. 7처 9회 39품으로 구성되며 7곳의 장소에서 아홉 번의 설법으로 총 39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 논고의 텍스트가 되는 「입법계품」은 이 경전의 마지막 품이다.

9회 설법의 장소는 초회 적멸도량회, 2회와 7·8회가 보광명전회, 9회 급고독원회의 5회가 지상 설법이 되며, 3회 도리천궁회, 4회 야마천궁회, 5회 도솔천궁회, 6회 타화자재천궁회의 4회가 천상에서 이루어짐으로 인삼천사人三天四의 설법이라고 한다.

『화엄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은 바로 「입법계품」이다. 「입법계품」에서는 보살행을 이야기하며, 52위 보살 계위[1]에 입각하여, 선재동자의 53선지식 구법 여행이 펼쳐진다. 선재동자는 문수보살의 지도를 받아서 남쪽으로 선지식을 찾아 떠나 총 53명의 선지식을 만나며 그들로부터 각 수행단계의 법문을 듣고, 마침내 보현보살의 광대한 행원을 깨닫게 된다. 문수보살은 선재동자에게 '그대가 길을 떠나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대의 스승이며, 선지식' 이라고 알려 준다.

▫ 53선지식의 신분계층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보살菩薩 5명: 문수보살, 관자재보살, 정취보살, 미륵보살, 보현보살 ②비구比丘 5명: 덕운비구, 해운비구, 선주비구, 해당비구, 선견비구 ③비구니比丘尼 1명: 사자빈신비구니 ④우바새優婆塞 1명: 명지거사 ⑤우바이優婆夷 5명: 휴사우바이, 구족우바이, 부동우바이, 바수밀다녀, 현승우바이 ⑥동남童男 3명: 자재주동자, 선지중예동자, 덕생동자 ⑦동녀童女 2명: 자행동녀, 유덕동녀 ⑧천신天神 1명: 대천신 ⑨천녀天女 1명: 천주광천녀 ⑩외도外道 1명: 변행외도 ⑪바라문婆羅門 2명: 승열바라문, 최적정바라문 ⑫장자長者 9명: 미가장자, 해탈장자, 법보계장자, 육향장자,무상승장자, 비슬지라장자, 견고해탈장자, 묘월장자, 무승군장자 ⑬선생先生 1명: 변우동자사 ⑭의사醫師 1명: 보안장자 ⑮선사船師 1명: 바시라선사 ⑯국왕國

王 2명: 무염족왕, 대광왕 ⑰선인仙人 1명: 비목구사선인 ⑱불모佛母 1명: 마야부인 ⑲불비佛妃 1명: 석가구바녀 ⑳제신諸神 10명: 안주지신, 바산바연저주야신, 보덕정광주야신, 희목관찰중생신, 보구중생묘덕주야신, 적정음해주야신, 수호일체성증장위력주야신, 개부일체수화주야신, 대원정진력구호일체중생주야신, 묘덕원만룸비니림신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입법계품」에 나오는 선지식들은 지위와 신분, 남녀노소의 성별을 가리지 않고 법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하였다. 선지식마다 자신과 인연이 있는 특별한 삼매에 들고 개성 있는 삼매를 통해 해탈문을 얻고 깨달음의 해탈법문을 중생을 위하여 회향한다. 무엇보다 감동스러웠던 것은 각 스승마다 제자를 자신의 도량에 붙잡아두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는다.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고 수행자의 부족한 부분을 알아차린 후 이끌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춘 스승을 추천해 주는 것으로 본인의 역할을 다하는 부분이었다. 또한 스승을 대하는 선재의 태도도 첫째 공경스럽고, 둘째 무한한 믿음이 있고, 세 번째는 정진하는 자세가 일념으로 신실하다. 천거해 주는 다음 스승을 찾아 의심 없이 길을 떠나는 확고한 태도와 법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엄정하고 겸손하며 집중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모두에게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각 선지식마다 본인이 깨달은 해탈법문을 아낌없이 설하여 주고 미련 없이 떠나보내는 스승의 모습과, 초연하거나 무수잡을 돌며 이별의 절을 하기도 하고, 때때로 몹시 슬퍼서 눈물로 이별하며 길을 떠나는 제자의 모습에서 인연법의 공성空性을 터득한 도인의 극치를 보여준다.

▫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닦습니까?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도를 닦는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道'란 일반적으로 길 · 이치 · 근원 · 사상 등을 말하며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또는 깨달음의 깊은 경지나, 경지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수행 방법이나 공부 방법이 되는데 무엇을 수행하고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 우리가 힘써 배워 익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선재가 만나는 선지식에게 항상 묻는 것이 있다.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행을 닦습니까?"[2] 수행한다는 것의 '修'는 잘 다스려서 닦고 정돈한다는 뜻이다. 무엇을 다스리고 닦아야 하는 것일까? 당연히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이다. 그러므로 결국 수행이란 도를 배워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인 팔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란 올바른 이해[正見], 올바른 생각[正思], 올바른 언어[正語], 올바른 행위[正業], 올바른 생계수단[正命], 올바른 노력[正精進], 올바른 알아차림[正念], 올바른 정신집중[正定]이다. 여기에서 올바르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생활하며 모든 살아 있는 생명들을 끝없는

---

1) 십신十信 · 십주十住 · 십행十行 · 십회향十廻向 · 십지十地 · 등각等覺 · 묘각妙覺

2) 善財가 白言호대 唯願聖者는 廣爲我說하소서 菩薩이 應云何學菩薩行이며 應云何修菩薩行이며 應云何趣菩薩行이며 應云何行菩薩行이며 應云何淨菩薩行이며 應云何入菩薩行이며 應云何成就菩薩行이며 云何隨順菩薩行이며 應云何憶念菩薩行이며 應云何增廣菩薩行이며 應云何令普賢行으로 速得圓滿이리잇고. 무비, 2021, 민족사 『화엄경』 제 4권, p.65

자비심으로 평등하게 베풀어 주는 자비행을 말한다. 「입법계품」에 나오는 모든 선지식들이 계와 정을 통하여 삼매에 들고 선정삼매를 통하여 얻은 해탈문과 법문을 아낌없이 선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으로 이루진 것이 「입법계품」이고 이러한 가르침이 바로 앞에서 던진 물음에 대한 답인 것이다.

II. 도표로 보는 「입법계품」 선지식들의 삼매 요약

구법의 길에 서 있는 모두를 위하여 한 지면에서 볼 수 있도록 53명 선지식의 주처, 삼매와 해탈법문, 수행 계위와 본인의 느낌 등을 도표로 정리하여 보았다.

선지식 善知識	주처 住處	◎삼매三昧와 ○해탈법문解脫法門	수행 계위 – 바라밀	요약과 *나의 입지
1. 덕운 비구 德雲 比丘	승낙국 묘봉산	◎염불삼매念佛三昧 – 항상 부처님의 덕을 일념으로 생각하고 모든 보살행에 앞서게 된다. ○억념일체제불경계지혜광명보견법문憶念一切諸佛境界智慧光明普見法門 – 모든 부처님의 경계와 지혜광명을 널리 보고 기억하는 법문	십주 十住 ①초발 심주 – 보시 바라밀	선재동자에게 지혜와 혜안을 얻는 방법으로 염불삼매를 추천한다. 염불수행念佛修行을 통해서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을 청정하게 하고 믿음을 증장시키며 구경정각究竟正覺을 향하여 길을 떠난다. 묘봉산妙峰山의 주처住處는 발심주發心住에서 선정과 지혜를 얻고 적정부동寂靜不動한 견해로 우뚝 솟아 만류萬類을 내려다보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나도 덕운비구와 같이 무궁한 공덕을 성취하여 자비와 법의 비를 내려 주는 수행자가 되고자 첫걸음을 내디딘다.
비구 比丘				
2. 해운 비구 海雲 比丘	해문국	◎보안삼매普眼三昧 – 생사의 바다를 관하여 광대한 지혜의 바다를 이루어 중생이 정법의 윤택함을 입도록 한다. ○제불보살행광명보안법문諸佛菩薩行光明普眼法門 –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행하는 지혜광명의 보안법문	②치지주 – 지계 바라밀	12년 동안 바닷가에 거주하며 마음 바다의 깊고 넓은 것을 살펴서 심지를 다스리는 보안법문普眼法門을 성취한다. 해운비구는 법보法寶를 상징하며 마음이 만법萬法의 근원根源임을 알고 지혜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 *무명無明에 가려져서 모르는 채 살아왔지만, 이 법문을 통하여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한 부분으로 조화롭게 존재하는 자신을 알게 되었다. 대비大悲와 대자심大慈心을 내어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고 안락하게 하고자 발원한다.
비구 比丘				
3. 선주 비구 善住 比丘	해안 취락 능가변	◎무애삼매 無礙三昧 – 모든 것에 걸림이 없다. ○보속질공양제불성취중생무애해탈문普速疾供養諸佛成就衆生無礙解脫門 – 널리 빠르게 제불에게 공양할 줄 아는 것으로 중생의 무애해탈문을 성취	③수행주 – 인욕 바라밀	허공虛空을 오가고 해와 달을 만지고 안개와 구름을 헤치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하늘 꽃을 뿌리는 선주비구에게 천룡팔부가 신통변화로 공양을 한다. 무애삼매無礙三昧란 모든 것에 장애가 없고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집착이 장애가 되는 것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 '어떻게 해야 걸림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진정한 의문을 품게 된 것도 선주비구 덕분이다.
비구 比丘				
4. 미가 장자 彌伽 長者	자재성	◎보살묘음다라니광명법문菩薩妙音陀羅尼光明法門 – 보살의 묘한 음성 다라니 광명 법문	④생귀주 – 정진 바라밀	선재동자가 보리심을 발하였다는 말에 사자좌師子座에서 급하게 내려와 오체투지五體投地를 올린다. 아만我慢의 마음을 하심으로 내려놓은 미가장자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연구하여 총지법總持法을 깨닫고 묘음다라니법문을 얻어 병을 고치는 분이다. *이 구절을 보았을 때 처음 발심한 수행자를 고귀하게 여기는 선배 선지식의 태도에 감동하였다. 나도 또한 누군가를 발심시키고 칭찬 · 찬탄하며 지혜롭게 법을 설하고 중생의 병을 고쳐 줄 그날을 그려본다.
비구 比丘				

5. 해탈 장자 解脫 長者 장자 長者	달리비 다국 주림성	◎보섭일체불찰무변선다라니삼매普攝一切佛刹無邊旋陀羅尼三昧 – 모든 부처의 세계를 두루 거두어 끝이없는 선 다라니 삼매를 얻음. ○여래무애장엄해탈문 如來無礙莊嚴解脫門	⑤구족 방편주 ㅣ 선정 바라밀	선재는 12년을 걸어서 주림성에 이르러 해탈장자를 친견한다. 해탈장자는 무애장엄법문을 얻어서 한 몸에서 무수부처님을 나타내고 한 국토에서 무수국토를 나타내며 오고 감이 없이 곧바로 도착하니 이것은 마치 하늘의 달이 동시에 모든 강에 나타나는 도리와 같은 것이다. 세간의 지혜를 나타내어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시키고 모두 대열반에 들게 하고자 하는 선지식을 어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도 이와 같이 수천 번이라도 다라니 삼매를 지속하여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리라 결심한다.
6. 해당 비구 海幢 比丘 비구 比丘	염부제 물가 마리 가라국	◎보안사득삼매 普眼捨得三昧 – 넓은 눈으로 얻은 것을 버리는 삼매 ○반야바라밀삼매광명법문 般若波羅密三昧光明法門	⑥정심주 ㅣ 지혜 바라밀	반야바라밀의 청정한 지혜광명으로 무엇이든 나타낼 수 있는 평등심을 성취한 해당비구를 선재는 반년 동안 관찰한다. 해당비구는 반야바라밀을 체달하여 현상의 본질이 본래 공한 것을 통달하여 일체의 분별과 집착이 없는 정심주正心住에 머무르는 비구이다. *꿈과 같은 세상에서 반야바라밀의 지혜광명으로 일체 중생의 오욕락五欲樂을 깨워 줄 해탈문을 얻으리라 결심한다.
7. 휴사 우바이 休捨 優婆夷 우바이 優婆夷	보장엄 동산	○이우안은당해탈법문 離憂安隱幢解脫法門 – 근심 없고 편안한 해탈법문	⑦불퇴주 ㅣ 방편 바라밀	이우안은당법문을 통하여 큰 서원誓願을 세워야만 비로소 참된 보리심을 발할 수 있다고 한다. 중생의 번뇌를 끊어주기 위하여 큰 서원을 먼저 세우고 착하게 마음을 쓰고, 마음을 편하게 하여 걸림이나 장애를 만들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 삼매와 지혜의 힘으로 열반에 머무르면서 권속眷屬이나 대중大衆 속에 있지만 항상 그들을 멀리 떠나기를 좋아하며, 세간世間을 따르지만 세간 속에서 일체 출세간법出世間法을 행하게 하는 해탈 법문이다. *모든 삼매문이 내 마음의 고요와 평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배웠다.
8. 비목 구사 선인 毘目 瞿沙 선인 仙人	나라 소국	○보살무승당해탈문 菩薩無勝幢解脫門 – 보살의 수승한 당기 해탈문	⑧동진주 ㅣ 원바라밀	비목구사선인이 선재동자의 정수리를 어루만진 후 선재의 손을 잡자, 시방세계의 부처님 세계와 높은 무승당해탈 법문을 통하여 얻은 동진주童眞住의 경지를 함께 체험한 다음 비목선인이 손을 놓자, 선재의 몸이 본래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선지식을 의지하여 일념一念의 순간에 부처님의 경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수미산須彌山과 같은 뜻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댈 수 있도록 기필코 법을 배워 당당하고 기운찬 법기法器가 되고자 염원한다.
9. 승열 바라문 勝熱 婆羅門 바라문 婆羅門	이사나 취락	◎보살선주삼매菩薩善住三昧 ◎보살적정락신통삼매 菩薩寂靜樂神通三昧 ○보살무진륜해탈문 菩薩無盡輪解脫門 – 보살의 다함이 없는 법륜 해탈문	⑨법왕 자주 ㅣ 력바라밀	선재가 승열바라문이 마구니가 아닌지 의심하자 욕계欲界와 색계色界의 천인天人과 범천梵天과 팔부천룡八部天龍 모두가 선지식의 가르침을 믿어야 한다고 응원한다. 그러자 선재가 용기를 내어 불구덩이에 몸을 던질 때 중턱에 이르기도 전에 보살의 선주삼매를 얻어 모든 번뇌를 소진한다. *역행선지식逆行善知識의 뜻을 아는 일은 쉽지 않지만, 선지식을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났다.
10. 자행 동녀 慈行 童女 동녀 童女	사자 분신성	○반야바라밀보장엄문 般若波羅密普莊嚴門 – 반야바라밀로 장엄 된 넓은 해탈문	⑩관정주 ㅣ 지바라밀	반야바라밀로 보문다라니문을 의지하여 아승지다라니문阿僧祇陀羅尼門이 나타난다. 정념正念으로 사유思惟한다는 것은 깨달음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기억하는 일이며 이로써 진실한 세계가 열리고,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고 자행동녀가 반야바라밀법을 의지하여 설법한다. *반야바라밀의 법 속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

11. 선견 비구 善見 比丘 비구 比丘	삼안국	○보살수순등해탈문 菩薩隨順燈解脫門 – 모든 보살마하살이 마치 금강의 등불과 같아서 여래의 집에 태어나서 죽지 않는 명근을 성취하는 해탈문	심행 十行 ①환희행 ㅣ 보시 바라밀	안으로 습기習氣를 다스리고 밖으로 이타행利他行을 실천하는 선견비구는 지혜의 안목을 갖추어 보시바라밀로서 수행의 으뜸을 삼는다. 그는 집착 없이 재물을 보시布施하여 지혜의 안목眼目을 이루고, 두려움이 없이 보시하여 자비慈悲의 안목을 이루고, 정법正法을 보시하여 법안法眼을 이루어 세 가지 안목과 견해를 갖추었다. *선견비구와 같이 보살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은 모든 것을 분명하게 관찰하고,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하는 안목을 갖추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2. 자재주 동자 自在主 童子 동자 童子	명문국	○일체공덕신통지법문 一切功德神通智法門 – 온갖 오묘한 공덕의 신통과 지혜의 법문	②요익행 ㅣ 지계 바라밀	명문국 강변에서 일만 명의 동자와 모래 장난을 하고 놀던 자재주동자는 천진스럽지만, 예상 밖으로 모든 일에 능통한 지혜를 갖추었다. 왕도를 통솔함에 있어 삼취정계三聚淨戒로서 자타自他를 요익饒益하게 하며, 상업 · 농업 · 산수算數 · 결인結印뿐만 아니라 중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방편方便을 갖추었다. *보살의 진정한 중생 구제력은 지식이나 재주가 아니라 맑고 진실한 생활로 스스로를 지켜 나가는 데에서 깊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3. 구족 우바이 具足 優婆夷 우바이 優婆夷	해주성	○무진복덕장해탈법문 無盡福德藏解脫法門 – 모든 불보살의 공덕이 바다와 같고 허공과 같은 해탈문	③무위 역행 ㅣ 인욕 바라밀	젊은 나이에 소복단장素服丹粧하고 장식이 없지만 위덕威德과 광명光明이 있었다. 구족우바이 앞에는 작은 그릇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인데 이 그릇으로 무량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충분한 음식과 보배가 샘솟아서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하게 하였다. 이러한 연유는 무진복덕장문을 얻어서 인욕바라밀忍辱波羅蜜을 실천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우리들도 인욕바라밀을 통하여 삼독심三毒心을 내려놓으면 시비를 다투지 않고 선악을 가슴에 묻어 두지 않고 희로애락喜老愛樂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고 남의 근심을 자기의 근심처럼 여기게 될 것이니 어찌 부처님처럼 존중받지 않겠는가?
14. 명지 거사 明智 居士 거사 居士	대흥성	○수의출생복덕장해탈문 隨意出生福德藏解脫門 – 뜻을 따라 마음대로 복덕장을 내는 해탈문	④무굴 요행 ㅣ 정진 바라밀	명지거사는 대중들의 소원을 알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보배를 무수히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덕창고를 가지고 있다. 귀천을 가리지 않고 소원을 만족하게 하는 법문을 얻은 것이다. 험난한 세속에 살면서 원융한 지혜로 중생의 마음을 밝게 해주며 크게 정진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함으로 명지라고 한다. *나에게 마음대로 보배가 나오는 창고가 생긴다면 과연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원하는 것을 나누어 주며 진실한 법을 설하여 줄 수 있을까?
15. 법보계 장자 法寶髻 長者 장자 長者	사자 궁성	○보살무량복덕보장해탈법문 菩薩無量福德寶藏解脫法門 – 보살이 무량한 법을 베푸는 해탈문	⑤이치 란행 ㅣ 선정 바라밀	법보계장자는 과거 미진수 겁 전에 부처님 전에서 음악과 향과 공양을 올리고 지혜를 닦았기 때문에 8개의 큰 문이 있는 10층의 아름다운 누각을 얻었다. 누각 속에는 중생들을 위한 생활필수품이 가득 차 있고 또 보배 창고가 있다. 여기에서 법보계장자는 지혜와 자비로 수행이 원만하여 모든 경지를 총섭總攝한 무진장법문을 한다. *초심자들은 의식주衣食住가 구족해야지만 법을 배울 수 있으며,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하여 선정禪定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선정을 통하여 비로소 지혜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16. 보안 장자 普眼 長者 장자 長者	등근국 보문성	○령일체중생보견제불환희법문 令一切衆生普見諸佛歡喜法門 –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을 친견하고 환희하게 하는 법문	⑥선현행 ㅣ 지혜 바라밀	보안장자는 향香과 약藥을 조제하여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치는 테라피스트이다. 평등한 자비심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며 세간과 출세간법에 분별심이 없는 행원으로 중생을 기쁘게 하는 법문을 얻었다. 인연법을 알아서 의식주를 충분히 제공해 주고 난 후에 법을 설하여 준다. 보문은 다양한 방편지혜를 의지하는 것이며 보안은 인연차별을 잘 아는 안목을 갖추었다는 뜻이다. *초기불교의 오종심관五種心觀이 대승불교의 꽃인 입법계품에 나오는 것이 놀라웠다. 탐욕이 많은 사람에게는 부정관不淨觀을, 성냄이 많은 사람에게는 자심관慈心觀을,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에게는 법상관法相觀을 가르치는 세 가지의 경문이 나온다.
17. 무염 족왕 無厭 足王 국왕 國王	다라 당성	○보살여환해탈법문 菩薩如幻解脫法門 – 보살이 온갖 지혜로 환과 같음을 아는 해탈문	⑦무착행 ㅣ 방편 바라밀	환幻과 같은 중생세간을 잘 알아서 살벌한 방편으로 악업惡業의 죄인罪人들을 다스리지만, 이것은 악업중생을 조복하기 위한 방편을 쓰는 것이다. 사리事理에 막힘이 없고 벌을 내리고 받는 것이 모두 환과 그림자임을 알고 집착이 없다. *삼독을 돌이켜서 계정혜戒定慧의 삼덕을 성취하게 하는 역행선지식의 가르침이 감당하기는 어렵지만 악업을 끊고 보리심을 내게 하려는 방편으로써 중생을 위한 자비행인 줄 알게 되었다.
18. 대광왕 大光王 국왕 國王	묘광성	◎보살대자위수순세간삼매문 菩薩大慈爲隨順世間三昧門 – 대자비로 세간에 수순하는 보살의 삼매문	⑧난득행 ㅣ 원바라밀	28종의 대인상大人相을 갖춘 대광왕은 대자비행으로 빈궁함을 없애고 두려움이 없게 하며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인정스럽고 예의 바르게 교화한다. 보살행은 어디까지나 중생을 위한 자비의 마음으로 지혜를 바탕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며,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안목을 열어줘야 한다. *누구나 일심으로 살지만 업력業力에 따라 세상을 보는 견해가 다르다. 청정하게 선근을 심고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발심하여 보살행을 닦는 사람에게는 고해의 세상도 보배로 장엄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렇기에 항상 바른 견해와 마음으로 수행해야 한다.
19. 부동 우바이 不動 優婆夷 우바이 優婆夷	안주성	○구일체법무염족삼매광명문 求一切法無厭足三昧光明門 – 일체 법을 구하여 만족함이 없는 해탈문	⑨선법행 ㅣ 력바라밀	부동우바이는 세상의 오욕과 일체 경계에 움직이는 바가 없으며 진리를 구하는 데 싫증을 내지 않는 법문을 얻었다. 미워하고 사랑하는 생각이 없이 정법을 배워 삼매의 광명을 얻었기 때문에 항상 미묘한 법을 말하여 중생을 기쁘게 하며, 법에 의지하고, 세속의 탐진치貪瞋癡 등에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진리를 배우는 데 있어 싫증을 내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보살의 올바른 수행인지 고민하게 되었고, 경계에 부딪혀도 초지일관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20. 변행 외도 遍行 外道 외도 外道	도살 라성	◎보관세간삼매 普觀世間三昧 – 널리 세간을 관찰하는 삼매 ○지일체처보살행문 至一切處菩薩行門 – 일체처에 이르는 보살행문	⑩진실행 ㅣ 지바라밀	수많은 기쁨을 만들어 낸다는 뜻의 도살라성에서 잘생긴 변행외도를 친견하는데 수많은 범천인이 호위하고 있었다. 그는 순수한 행과 고요한 마음으로 96종의 외도外道를 조복시키는데 근기根器와 기연機緣에 맞추어 조작함이 없었다. 그는 외도이지만 모든 곳에서 보살행을 닦는 일체처보살법문을 얻었으며 진실행眞實行을 증득하였다. *지금까지 출현한 모든 선지식의 공통점이 상호원만과 지계제일과 단함만행이었다. 중생을 교화할 때 위의와 상호원만이 중요한 방편이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또 순수한 마음과 고요한 행동은 고귀한 것으로 어디에서나 존경과 우러름을 받게 됨으로 이런 자세를 체득하려 노력해야겠다.

〈다음 호에 계속〉

Just Be, 是

준한

출가 전, 1999년 미국 워싱턴대학교 재학 중, 큰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 그 당시 한국학생회 회장이었던 나는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되었다. 즉사할 정도로 대형 사고였는데, 다행히 모두 무사했지만, 친구 한 명이 깨어나지 못하고 의식 불명 상태로 코마 상태에 빠졌다. 매일 생사를 넘나들던 친구와 함께 나도 역시 지옥 같은 나날이 지속되었다.

그해 여름, 처음 뵈었던 미국인 스님인 현각스님이 문득 떠올랐고, 전화를 걸어 '목숨 걸고 수행하고 싶다' 고 말씀드렸다. 스님께서는 서울 화계사 국제선원에서 여름 하안거 수행을 권하셨다. 숭산 큰스님의 원력을 따라 남녀노소, 인종, 국적 할 것 없이 가지각색의 사부대중이 함께 수행하던 국제 참선 도량이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수행이 하안거 결제였다. 교통사고가 난 만신창이의 몸으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9시간 좌선, 2시간 예불을 하면서 철두철미한 묵언을 통해 '지옥에서 벗어나고자' 용기를 내서 입방한 것이다. 매일 새벽 3시 일어나자마자 108배와 사홍서원[1]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안거 기간 중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앉아서 숨쉬고 생각하는 것뿐이었다.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망상의 연속, 온몸이 쑤시고 아픈 날이 지속되었다. 지옥에서 벗어나려 들어온 선원이 진짜 지옥이 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던 중, 입승 스님과의 선문답을 통해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없었다. 입승 스님께서는 숨을 들이쉴 때,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깊게 들이쉬고, 내쉴 때는 '오직 모를 뿐' 하면서 천천히 내쉬라고 하셨다. '오직 모

준한스님

해인강원 · 율원 졸업
서울 JustBe 홍대선원 주지
국회 정각회 & 기자 & 청년불자회 지도법사
BTN 라디오 울림 '오! 지금' DJ
(전) 계단위원회 수계신림 습의사 교수사

를 뿐' 은 그 이후에도 평생의 친구가 되었다.

수행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망상과 망상이 꼬리를 계속 이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나는 스스로의 화두를 들고 입방했다. '괴로움의 뿌리, 즉 시작이 어디인가?' 그러던 중 한 생각이 일어났고, 그 생각에 매몰되어 상기병이 생기게 되었다. 더 이상 머무르면 미칠 것 같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는 찰나, 벼락이 내리쳤다.

'속았구나!' '이 모든 고통은 나의 생각이 만들어 낸 허상이었구나. 지금 이 순간 존재하지도 않는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내어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구나.'

두려움, 죄책감 등 모든 번뇌가 다 꿈이었음을 현전에서 벼락 치듯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고통과 기쁨, 괴로움과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생각이 모두 만들어 낸 결과물이었음을 분명하게 알았다.

숭산스님께서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좀 더 심한 고통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번뇌가 극에 달했을 때 결국 고통의 본질을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이었다. 드디어 망상이 모두 가짜임을 알고,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열린 것이었다.

며칠 뒤, 삼천배 철야정진을 동참하면서 두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 소리가 법당 안을 가득 메우고, 그 소리와 함께 나는 눈물과 땀으로 하나되어 오직 절할 뿐이었다. 지난 22년 동안의 모든 업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나의 삶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꿈으로 존재한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순간뿐, 찰나생 찰나멸한다.

나는 항상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잘했기 때문이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항상 남을 탓하거나 상황에 탓을 돌렸다. 이 얼마나 무지했던가? 상황이나 조건,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무한한 힘을 가진 내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존재했는데, 그걸 모르고 평생 휘둘려온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본래 부처와 같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체득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

〈매트릭스〉[2] 영화 1편에서 모피어스가 주인공인 네오에게, '도를 안다는 것과 도(길)를 스스로 걷는 것은 다르다(Knowing the Path is different from walking the Path).' 라고 말한 것처럼, 반드시 수행을 통해서 불교를 공부해야 한다. 반드시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나 자신을 깨달아야

---

1) 모든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Sentient beings are numberless. We vow to save them all.
번뇌는 끝이 없나니, 모든 번뇌를 끊으오리다. Delusions are endless. We vow to cut through them all.
가르침은 무한하니, 모두 배우오리다. The teachings are infinite. We vow to learn them all.
불도는 모든 것을 초월하니, 불도를 이루오리다. The Buddha Way is inconceivable. We vow to attain it.

지, 남이 깨달아 놓은 것을 읽고 꼭 자신이 깨달은 것처럼 착각하면, 남은 물론 스스로도 삿된 길을 걷게 하는 악업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화계사에서 한 달간의 용맹정진을 마치고, 집에 도착해 이메일을 여니 기적 같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식물인간으로 중태에 빠져 있던 친구가 그 사이 기적같이 깨어났고, 처절한 재활운동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불안과 두려움에 괴로웠던가. 이 시련과 번뇌가 부처님께서 주셨던 선물이었음을 알았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를 속으로 되뇌면서 남은 생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드디어 나에게도 큰 원력이 생긴 것이다.

수행이란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취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두려움' 의 空함을 체득해 나가는 과정이다. 자기 스스로와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이 일대사인연, 즉 삶의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연인 것이다.

첫 안거를 무사히 마친 후, 내 삶은 오직 즐거운 도전의 연속이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맞이하면서, 휴학계를 내고 한국에 돌아와 붉은악마 응원단을 이끌며 '대한민국 축구 공식 응원단' 이 되었고, '下心청년수행그룹' 을 Daum Cafe에 만들어 운영하였는데, 1년간 800명의 인원이 모이게 되었다. 청년들이 모인 하심수행그룹은 매주 만나서 수행하고, 도움이 필요한 절들을 다니며 봉사를 다녔으며, 한 달에 한 번 삼천배하고, 큰스님들을 친견하여 법문을 들었다. 그리고 1년 뒤 미국으로 돌아와 아파트 방을 개조하여 Humble Mind 참선 커뮤니티를 만들어 함께 수행하고 정진하는 길을 만들어 나갔다.

그러던 중 세계일주를 계획하게 되었고, 여행의 목적은 새로 생긴 화두 즉, '나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앞으로 어떤 일(직업)을 가지고 살 것인가?' 에 대한 답을 찾은 여행을 떠났다. 기간은 6개월, 여정은 단순하게 '지구 한 바퀴' 였다. 세계 일주를 통해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환경 파괴의 주범은 육식 문화인 것을 알게 되었다.

부처님의 첫 번째 계율이 '불살생' 인데, 이 계율을 파계하고, 사람들은 '세 치 혀' 의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이고 환경을 파괴하는가. 우리 인류의 공업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채식과 환경 공부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사찰음식 문화야말로 세계 최고의 음식 문화라고 생각,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 매일 함께 수행하던

---

2) 《매트릭스》(원제: The Matrix)는 1999년 개봉한 미국의 SF 액션 영화이다. 워쇼스키 형제가 제작, 감독하고 키아누 리브스, 로렌스 피시번, 캐리앤 모스, 휴고 위빙 및 글로리아 포스터가 출연했으며, 매트릭스 시리즈 첫 번째 작품이다. 인공지능 컴퓨터와 기계에 의해 인간이 양육되는 2199년의 미래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도반들과 창업을 준비했다. 대학 마지막 학기, 창업 클래스를 수강하고, 우리 팀이 만든 '세계 채식 뷔페 사업계획서'가 클래스에서 1등을 하고 투자금도 받게 되었다. 친구들과 함께 창업팀을 꾸려서 매일 수행하며 준비하던 중, 2005년 BTN 불교TV에서 미국으로 연락이 왔다. 당시 한창 유명해지신 현각스님의 〈살아 있는 금강경〉 법문 영상 자막 번역을 의뢰 받은 것이었다. 태어나서 처음 읽게 된 경전이었다. 전율이 일어났고, 전생부터 이 경전을 계속 수행하고 있었음을 느꼈다. 마지막 회 번역을 마친 후, 처음으로 출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바로 결심했다. '지금 사업을 할 때가 아니구나, 나의 지혜와 힘을 기르는 게 먼저다'

부처님의 가피에 더 지혜롭게 회향하는 것, 포교에 원력을 가지고 귀국해 출가했다. 덕숭총림 수덕사에서 행자 생활을 마치고 사미계를 수한 후, 악명(?) 높은 해인사 강원과 율원에서 공부했다. 6년간의 수학을 마친 뒤, 다음 도전은 '위법망구 구법순례' 였다. 다시 한 번 목숨을 건 수행이 필요함을 느끼고 1년 6개월간 구법 순례를 떠났다. 차마고도, 히말라야, 룸비니, 부다가야, 다람살라, 라다크까지 순례했다. 순례길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였고, 다람살라에서 달라이라마와의 극적인 만남, 수기를 받는 경험까지, 살아 있는 수행이었다.

2014년 순례를 마치고 돌아와 소백산 깊은 곳 어느 노스님께 물려받은 토굴에서 정진을 시작했다. 2019년 두문불출 천일기도를 시작하고, 회향하는 날, 2021년 겨울 서울로 나와 불사를 시작했다. 바로 지금의 서울 JustBe 홍대선원의 시작이었다.

포교와 수행은 둘이 아니어야 함에 확신한다. 이제까지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다이내믹한, 다양한 방법으로 길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 주고 싶다.

모든 괴로움은 항상 지금 시작하며
괴로움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도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일으켜 행동할 것인가.

오직 나의 선택이다.

고요한 우레를 듣다

– 활성스님을 뵙고 –

선재 / 사교과(3학년)

오래 꾼 꿈은 그리움을 닮았다고 한다. 멋모르는 치문시절, 도반과의 대화 도중 무작정 세운 발원. 우리말과 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려 애쓰고 계신 '고요한 소리' 회주 활성스님을 찾아가는 여정은 들뜬 설렘이 아니라 익숙한 그리움을 닮아 있었다.

시간에 딱 맞게 도착한 우리들을 스님께서는 이미 마당까지 나와 기다리고 계시다가 맞아주셨다.

"강원 학인들이라, 나는 강원도 안 나왔고 그냥 선방이나 좀 다니다가 토굴생활을 해서 학인들이 뭘 생각하고 뭘 궁금해 할지 잘 모르겠네요. 나는 뭐라고 불러줘야 되나요?"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호칭을 어떻게 할지 먼저 물어봐 주시는 모습에서 스님의 세심한 자비가 느껴졌다.

●

"저희가 '고요한 소리'도 많이 궁금하고, 스님께서 학인에게 해 주실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내 인생에 한 가지 잘 한 결단이 있다면 출가지요. 잘 한 건데 어쨌든 내가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는 굉장히 이기적인 셈이지요. 그래서 과장되게 말하면 만 중생에게 법을 펴서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야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봉암사에서 살면서는 봉암사에 진 빚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해서 국립공원이 될 뻔했던 봉암사를 종립특별선원으로 만들었고, 또 10·27법난 후 서울로 올라와 법난을 수습하면서 종단 빚은 어느 정도 갚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처님 빚은 갚을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고요한 소리' 였지요.

'고요한 소리' 내면서 불교서적을 보니까 값은 굉장히 비싸고 책 질은 참 형편없는 게 많았어요. 오·탈자는 예사에 한문투성이고, 그래서 '한문은 될 수 있으면 안 넣는다, 오자나 탈자는 완벽하게 없을 정도로 낸다, 그리고 싸게 해서 판다' 는 원칙을 세웠지요. 처음에 '영원한 올챙이' 라는 책을 냈어요. '보리수잎' 오백 원, 그 다음에 '법륜' 은 천 원, 그때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오백 원이고, 천 원입니다. 이것은 내 원이에요. 내가 부모님과 이 사회에 덕을 많이 봤는데,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추구한 일은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철저히 안 되더라고요. 참 이상할 정도로 안 돼요. 그런데 출가하고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뭐든지 돼요. 불사도 다 되더라고요. 정말 희한하게. 내 스스로 놀라요."

●

"요즘 세상이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불교에서, 부처님에게서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 좀 비극적이지요. 인류사회가 지금 기후위기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옛 경전에 따르면 거의 말세적인 상황인 거는 확실한 거 같아요. 요새 인류가 짓고 있는 업상, 즉 공동체로서의 공업과 민족의 업, 사회의 업 등이 있을 텐데 불교에서만 답이 있다고 봐요. 다른 데서는 다 헤매는 것 같은데 불교는 진작 그 문제는 아주 명쾌하게 답을 부처님이 내리셨지요. '탐·진·치' 삼독이 업이지요. '탐·진·치' 업이 극단에 다다르니 기후변화라든가 업보가 나타나는 양상도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자연재해에 한해서 유독 어떤 사회는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회는 덜한 것이 참 너무 표가 나게 뚜렷이 나타나서 신기해요. 업보가 뚜렷하다는 것은 그 업을 짓는 중생들에게 교훈을, 경책을 집중적으로 준다고 볼 수 있잖아요? 지구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사회들이 받는 재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은 그에 비하면 자연재해는 적은데 인간이 인간으로 인해서 받는, 남북관계도 인간관계지요. 그것은 대신에 또 어느 사회보다 치열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좀 덜한 곳에서는 인간재해가 심하고. 참, 자연이랄까 하늘이 어떻게 보면 너무 노골적일 만큼이나 절박하게 인류에게 막 경책을 쏟아 붓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인간을 구제해야 할 종교가 또 가장 절박한 상황을 배출하는 주역들 같거든요. 종교란 게 어떻게 보면 미망이고, 맹목이잖아요. 그러나 부처님은 지혜를 말씀하셨지요. 맹목을 깨고 오히려 날카롭게 지켜보고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게 불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종교라기보다, 오히려 인류를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시키려 노력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면 불교 이해도 그렇고 수행하는 것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

"이런 시기에 출가한 학인들이 어떻게 공부지어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교가 비로소 지구상의 보편적 가르침으로서 바야흐로 인류가 소위 전통적인 미망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시대를 맞이하는 국면인 것입니다. 종교가 막 사라지면서 불교라는, 과학의 부족한 점을 오히려 채워줄 수도 있는 큰 품, 이런 것이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으니 세상을 불평불만으로 대하기보다는 축복으로 대할 만하지요. 이런 시대에 났는데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었으면 진지하게 불교에 대해서 좀 더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좀 잘 하고 해야겠지요?

나는 한국이 특히 앞으로 상당히 재미있을 것이라고 봐요. 한국이 전통을 이어오는 맥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고요한 소리' 같은 것도 출현을 한단 말이지요. 참 특이한 일이 아닌가요? 그래서 케이팝(K-pop)이니 뭐 나오는 것보다도 더 본격적인 일이 한국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부처님이 시설하신 삼보를 드디어 21세기에 와서 모든 인류가 수용을 할 만큼 인류의 근기가 성숙한 때를 맞아 한국에서 군더더기들을 다 제거하고 오로지 근본불교 그 자체를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이런 엄두를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국민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불교가 어렵다고 하면 말이 안 맞아요. 불교는 아주 쉬워야 돼요. 간단명료해야지, 무슨 복잡한 이론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모든 중생이 마음 편하게 수용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내가 근본불교를 표방을 하지만 실제로는 오계를 지킨다고 자신할 수가 없어요. 살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불살생을 원한 것은 맞지요. 그래서 심지어 사리불 동생 같은 분은 뱀한테 물려 죽어도 그 뱀 안 죽이잖아요. 물론 우리도 그것은 충분히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뱀은 안 죽이지만 파리나 모기도 안 죽이나요? 또 예를 들면 코로나 균은 안 죽여요? 병 고친다는 명분으로 약을 먹고 병균 죽이잖아요. 균은 생명 아닌가요? 그것도 안 해야지요, 원래는. 그러면 의문이 생기지요. 부처님은 정말 어떤 의도

였을까? 부처님도 소소계는 버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나 살생이 소소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기본 오계인데. 그러면 그 소소계란 좀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이야기라고 나는 생각해요. 시대의 변화도 상황의 변화도 감안해서 '상황을 관하라' 는 말로 해석을 하고 싶네요. 예를 들면 삼국시대에도 화랑오계에 '살생유택' 을 이야기했지요. 그러한 응용이 지금은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불교의 계율에 매여가지고 불교 자체가 망해버린다면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법을 펴는 것이고 법을 유지 존속하는 것이지요. 부처님 법을 살리고 진흥시키고 인류에게 큰 이익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세속오계를 예로 드시며 부처님 법을 지금 시대에 맞게 되살려 인류에게 큰 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니, 원광국사의 정신이 살아 있는 운문사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인들이 앞으로 가야할 큰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부파불교와 근본불교를 나누는 기준이 있으십니까?"

"기준을 세우면 기준에 어긋나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여기서 많은 문제가 생기지요. 너무 융통자재하다 보면 기준이 없으나마나한 이야기가 되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영향도 있는데, 어쨌든 지혜롭게 판단해 나가야 하고, 가장 우리가 믿을 것은 자기의 양심이겠지요.

근본불교도 빠알리경이 과연 근본경이냐? 이것도 이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신통력이 생겨서 2천5백 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상황을 눈으로 보면 해결될까요? 당장 이 시대 우리가 매일 보는 현상세계도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이해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현재의 눈으로 보는 것도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서 아무리 객관적일지라도 결국 현대인의 눈으로 보는 것인데, 현대인의 눈이 신통력을 얻어서 저 2천5백 년 전 상황을 들여다본다고 뭐가 해결되겠어요? 오히려 더 몰라요. 우리가 뭘 보면 아나요? 선사들이 다 그러잖아요. 알았다고 하면 한 방망이 때리잖아요. 알 수 없어요. 세상은 알 수 있을 만큼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단했다면 지구가, 인류가 벌써 망했어요."

"마지막으로 스님께서 요즘 학인들에게 당부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바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불만이 생깁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내 주관이나 편견, 관념, 습관, 경험적이고 신체적인 조건들이 형성하지요. 그 바람을 가지고 보니까 세상이 나와 안 맞는 것 같고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우리 불교에서는 '다 비워라, 놓아라, 바라는 그 버릇부터 고쳐라, 놓아버려라.' 라고 하지요. 그러나 놓아지나요? 놓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 놓으려 애쓰는 그 자체가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요? 그보다 더 거룩한 일이 있나요? 애쓰다가, 만일 애쓰다가 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수행자예요. 보통은 포기하지요. 애쓰는 그 자체를 포기하고 타협하지요. 그 타협하기를, 쉽게 하기를 멈추고 애써 봐요. 절대 안 놓아져도 놓으려고 애써 봐요. 이게 선지식, 선사들이 하신 말씀들이지요. 우린 애쓸 따름입니다. 애썼는데 애쓴 결과가 안 나타나서 속상하고 불만스럽다면 그건 애쓴 게 아니에요, 욕심 부린 것이지. 바깥 상황도 그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뜻에 안 맞고, 내 기준에 안 맞다고 내 기준에 맞추도록 자꾸 애를 쓰면 그런 허욕, 그런 욕심이 어디 있나요? 그 기준을 놓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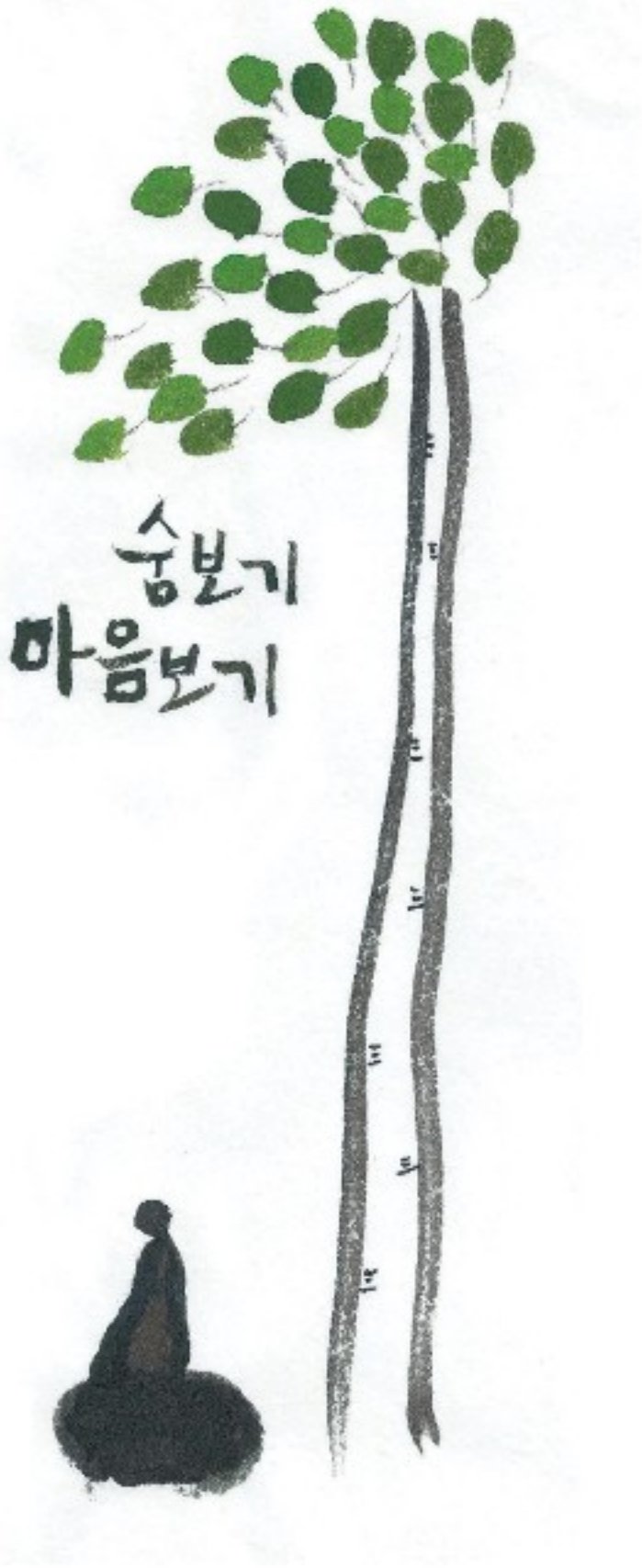
직접 찾아뵈며 눈앞에서 듣고도 부족해 녹음기의 도움을 받아 몇 번씩 반복해서 들으며 애써도 스님의 가르침을 오롯이 옮기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 스님께서는 삼천 년 전 부처님의 원음을 오늘날에 되살리려 얼마나 애쓰셨을까. 정말 대원력과 대자비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느껴졌다. 졸고를 정리하고 저녁예불에 '불법 전한 역대조사 천하종사 한량없는 선지식께' 예경을 올리는데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다. 처음도, 중간도, 끝도 한결같은 선지식의 지혜와 자비를 지면에 그대로 전하지 못해 안타까울 따름이다. 부족한 부분은 모두 아직 정견을 갖추지 못한 학인의 소견으로 보고 듣고 옮긴 탓이다.

삼천 년 전 여래께서 토한 사자후
일순간에 온 법계 고요해지다
삼천 년 후 지리산 메아리소리
고요한 우레 되어 세상 깨우네
구름 속에 우레 담아 문 안에 드니
소리는 간 데 없고 자비만 가득.

定

혜명 / 사교과(3학년)

숨보기 마음보기



뭉게구름처럼 몽글몽글
행복이 피어나는

뭉밀이의 일상

현밀 / 운문사승가대학 도감

올해처럼 밝고 맑은 푸른 하늘을 보신 적이 있나요? 푸른 하늘 사이로 하얀 솜털처럼 몽글몽글 피어 있는 뭉게구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일상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운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도감 소임을 맡으며 운문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운문사에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며 불교크리에이터로서 뭉밀이 작가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새로운 일상들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학인 시절, 운문사 강원 생활하면서 제일 좋아했던 일은 운문사의 하늘과 구름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운문사의 이름에도 걸맞은 아름다운 자연풍경과 하늘 그리고 뭉게구름을 보면서 마음에 편안함과 삶의 힘을 얻었던 나날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기억들이 모여 뭉게구름을 보고 느꼈던 마음과 제가 생각하는 불교도 이와 같음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린이 포교부 일원으로서 운문사 최고의 포교 프로그램인 여름불교학교를 매년 참가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린이들과 지내면서 불교를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포교를 통해 즐거움과 기쁨을 알아서 행복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 포교 원력으로 저를 이끌어 불교크리에이터 4기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저는 포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그리기를 취미이자 수행의 일부로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불교적 의미가 담긴 대표적인 캐릭터 뭉밀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뭉게구름을 닮은 '뭉밀이' 캐릭터로 인스타그램에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뭉밀이'를 주인공으로 다양한 일상을 그림으로 구현, 뭉밀이의 일상툰, 인스타그램 카툰(일명 인스타툰)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툰을 포스팅하며 폰배경 사진과 간단한 메시지도 함께 남기며 불교가 어렵지 않게, 또 자연스럽게 와닿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뭉밀이' 는 동글한 얼굴에 복스러운 볼을 가진 귀여운 동자 캐릭터입니다. 이름은 뭉게구름의 '뭉' 과 제 법명(현밀)의 '밀' 에서 따왔습니다. 뭉밀이의 가장 큰 특징은 빵빵하게 강조된 볼입니다. 몽글몽글한 뭉게구름처럼 보기만 해도 따뜻하고 편안한 마음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뭉밀이는 항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언제나 깨끗하게 밝게 맑게 나다운 삶을 살아가세요" 발원합니다.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힘은 공감이라 생각합니다. 지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작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주위에 얼마나 많은 행복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또 이러한 공감을 통해 주위에 모든 인연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더 나은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자신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교크리에이터로 다양한 활동을 현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뭉밀이 캐릭터는 MZ세대 포교를 위한 제품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고, 또 법장스님(해인사 학감스님)의 "인생의 리셋, 인생의 리스타트" 문구와 함께 그려진 뭉밀이 출가 일러스트는 이번 불교박람회에서 출가부스를 운영할 때 굿즈, 현수막, 포토존 제작에 활용되어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출가상담에 젊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서 매우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현대불교신문에 불스타툰으로 연재 중인데, 연재를 하면서 자료를 찾고 저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중에 "책만들기" 제의가 들어와서 향후 1~2년 사이에 뭉밀이의 일상을 책으로 낼 수 있는 정말 행복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출판사 담당자님께서 "뭉밀이가 주는 따뜻한 말들이 좋았다. 불교 메시지를 전할 때 자연스럽게 불자이신 부모님께도 보내드리니 너무 좋아했다. 현대적이고 감성이 넘치는 뭉밀이 그림이 많은 독자 분들에게 선물처럼 여겨지는 존재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에 큰 힘을 얻어 제작하려는 마음을 내었습니다.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뭉밀이를 통해 기쁨과 위로를 받는 분들이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바쁜 저의 일상에도 힘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경험하고 배운 대로 불교를 실천하며 올바르게 모든 이들에게 불교의 마음을 뭉밀이를 통해 전하고 소통하는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며 모든 이들이 날마다 뭉밀이처럼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뭉밀이와 함께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한국, 운문사까지

혜산 / 사집과(2학년)

안녕하십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온 사집반 지혜 혜, 뫼 산, 혜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아르헨티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지만, 운문지가 아르헨티나까지 배송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한국어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은 대부분 카톨릭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카톨릭인으로 삽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씩 종교를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동양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교 친구가 작은 잡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불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데 읽어 보고선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국 절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가봤더니 느낌이 너무 좋았고, 법회 때마다 가르침을 들으면서 항상 고민했던 문제에 대해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절에 다니다가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언어가 제일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출가하고 나서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안 되었고 문화적으로도 너무 달라서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재미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들어가시다"와 "돌아가시다"가 구분이 잘 안 돼서 한번은 대중 스님들과 울력을 하는데 '대장 스님 들어가셨으니까 우리도 마무리 합시다'라는 말을 "대장 스님이 돌아가셨어요"라고 전달해서 대중 스님들을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는 대중들의 몸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통과 같은 대중 목욕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고 같이 씻는 것이 어색하고 이상했습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른다는 표현처럼 몸을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씻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혼자 있을 때 열심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나, 왜 한국말을 배워야 되나…' 잠이 든 꿈속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생에 저는 한국 스님이었고 아르헨티나에 가게 되었는데 해야 할 일이 다 끝나기 전에 목숨을 다한 것 같았습니다. 언어 때문에 할일을 다 못하고 가니까 그 몸을 벗는 순간에 원을 세운 것이지요. 아르헨티나에 태어나서 그 생에 못다 한 부처님 심부름을 완성할 수 있게 마음을 냈습니다. 그렇게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게 되면서 이번에는 한국말을 다 까먹어버렸지 뭡니까. 아! 한국말을 까먹지 않게 마음을 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삽화_ 2학년 명주

그 후로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문화적으로도 받아들이기가 수월해졌습니다.

가끔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그러면 생각하고 대답하는 그 마음의 본래 자리가 어디인지, 또 그것이 무엇인지 느껴질 때 너무 행복합니다. 이 감정을 여러분께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염화미소(마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집에 올라와 처음 배운 선가귀감禪家龜鑑 첫 구절에 나오는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유일물어차有一物於此하니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종본이래從本以來로	근본을 좇은 이래로
소소영령昭昭靈靈하야	밝고 신령스럽다.
부증생부증멸不曾生不曾滅이라	일찍이 나지도 아니하고 일찍이 없어지지도 아니한다.
명부득상부득名不得狀不得이로다.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다.

저에게는 이 한 물건, 그것이 저의 본래 자리, "참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참나"를 믿고 맡기면 뭐든지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 잘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 어른 스님들께서 강원에 가야 된다고 하셨을 때도 저는 "참나"를 믿고 운문사에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운문사가 제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스님들도 계셨지만, 현재 한국에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강원은 운문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운문사에 와서 한국문화와 불교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문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뜻을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면서 해보지 못한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남은 강원생활 동안 진실한 마음으로 여일하게 정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마음이고 우리의 근본은 부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둘이 아니라는 것을 순간순간 알아차리면 행복하고 감사하게 수행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모두 행복한 수행자가 되시기를 발원합니다.

空

여연 / 사미니과(1학년)

무한한 시간 속
지금 여기
한량없는 우주 속
지금 여기

보고 있는가
그대의 참 모습을
듣고 있는가
새들의 노래 소리를

익숙한 듯 낯선
삶 속에서
낯선 듯 익숙한
순간 속에서

그대여,
지금 이 순간
헌 짚신을 벗고 맨발로 걸으라

삽화_ 1학년 승목

Full-time 수행자

덕산 / 사미니과(1학년)

삽화_ 1학년 혜념

"교수님, 출가 생활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히 말하자면, 출가를 하면 full-time 수행자가 되는 데 훨씬 유리하죠. 개인적 경험으로는… 출가 전엔 도무지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스님이 되고 나니 모든 것이 길로 보였어요."

출가 전, 휴직을 하고 대학원에서 불교공부를 하던 무렵 지도교수 스님과 나눈 대화입니다.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변화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던 제게 참으로 공감이 되고 위안이 되는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휴직 전, 약 7년간의 안정적인 교직생활은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학생들과 나눌 수 있는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분별의 프레임에 의문을 품고 있었던 저는 다문화, 환경문제, 인권, 젠더 이슈 등을 주제로 우리 자신과 이 세계의 다양성을 교육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기가 지나자 성취지향적인 기존의 틀 안에서 무언가를 구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의 내적 성장이 일어나기 어렵겠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잠시 쉬게 되었고, 그 쉬는 시간은 결국 출가로 이어졌습니다.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생존 경쟁의 트랙 위에 놓이게 되는데 저 또한 그러했습니다. 조건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어 가는 상황에 반응하고 적응하는 데 상당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최근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파트타임이 아닌 풀타임 수행자가 된다는 것은 생존 경쟁의 트랙에서 내려서겠다는 하나의 선언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결심은 마음의 방향을 더 세밀하게 자각하고, 자유로움을 주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저의 많은 부분들을 인식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동시에 정해진 트랙이 아닌 무한히 펼쳐진 가능성을 음미하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현상 세계 안에서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 삶의 형태가 바로 출가가 아닐까요?

출가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이 시점에 문득 '내가 나 자신을 교육하는 과정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계한 교육과정의 키워드는 '수용'과 '전인적 성장'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했었던 경험과 저의 성장과정을 돌이켜 보면, 교육활동에서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결국 따뜻한 수용이었습니다. 우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과정이 성장과 변화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풀타임 수행자로의 전환에서도 이것을 적용하여 스스로를 수용하고 좀 더 자신과 친해지는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운문사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내면의 작용을 보게 되는데요, 그중에는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습관적인 패턴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싫거나 부정하고 싶은 저의 어떤 부분을 마주할 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기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줍니다. 이 말 한마디에 나의 생각, 감정, 행동 등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게 되는 여유가 생겨납니다.

한편,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평가'인데 이 과정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특히 한 개인의 전인적 성장을 점검하는 데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육자라면 점검의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 자체를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기도 하지요. 마침 이 글을 쓰면서 마음속에만 있었던 스스로를 점검하는 내용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출가 전에는 계획대로 성실하게 노력해서 더 많이 쌓는 것에 치우쳐 평가하고 있었다면, 아래 각각의 질문은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영성적 영역에 대한 통합적 확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신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나요?
- 법을 펼 수 있는 매개로서, 전문적 역량이 길러지고 있나요?
-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고 있나요?
- 상대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에 대한 자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 자신이 스스로를 교육하는 주체이자, 객체인 이 순간의 모든 경험들이 유일하고 소중한 기회임을 알고, 따뜻한 시선으로 스스로와 주변 세계를 탐색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에게도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풀타임 수행자의 길로 한 걸음씩 옮겨 갈 수 있기를 마음 깊이 발원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

변화무쌍 무상無常 속 오색찬란 풍성豊盛

편집부

이제 저희도 수좌라 불러 주세요

꿈만 같은 보드가야에서의 연꽃 공양

행복한 설현당 식구들

이제 이 정도 과일쌓기는
눈 감고도 가능하답니다

운출(운문사 출신) 다 모여랏!

추석 준비는 다 함께~

점심시간엔 황토길 포행이죠

운문사 학인들은 도대체 못 하는 게 뭐예요

운문사역사문화관 개관식 준비에 해맑은 엄마반~

정진바라밀

혜석 / 사교과(3학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진바라밀에 대해 차례법문을 하게 된 혜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정진력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정진력을 일으키는 가까운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태어나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위험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중생들이 바쁘게 사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진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삶의 절박감을 일으키도록 장려하는 경인 『앙굿따라니까야』의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 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많이 공부하면 큰 결실과 이익이 있고 죽지 않음에 이른다."

그러자 어떤 비구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고 있습니다."

"비구여, 그러면 그대는 어떻게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는가?"

비구는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참으로 나는 하루 밤낮밖에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세존의 가르침을 마음챙김 하리라. 그러면 참으로 지은 것이 많을 것이다' 라고. 세존이시여, 저는 이렇게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습니다."

그러자 비구들이 차례로 말했습니다.

" 참으로 나는 하루 낮밤에, 한 번 밥 먹는 시간밖에, 네다섯 입의 음식을 씹어 삼키는 시간밖에, 한 입의 음식을 씹어 삼키는 시간밖에,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시간밖에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세존의 가르침을 마음챙김 하리라. 그러면 참으로 지은 것이 많을 것이다.' 라고, 세존이시여, 저는 이렇게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습니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나는 하루 밤낮밖에, 하루 낮밖에, 한 번 밥 먹는 시간밖에, 네다섯 입의 음식을 씹어 삼키는 시간밖에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라고 했던 비구들은 방일하게 살고, 번뇌를 멸하기 위하여 둔하게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는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나 참으로 나는 '한 입의 음식을 씹어 삼키는 시간밖에,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시간밖에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라고 세존의 가르침을 마음챙기는 비구들은 부지런히 살고 번뇌를 멸하기 위하여 예리하게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는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번뇌를 멸하기 위해 부지런히, 예리하게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아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한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언제 끝날지 모를 소중한 이 한 생에서 진실하고 절박하게 수행을 해나가야 합니다.

지혜처럼 정진도 하나의 심소법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오직 선심과 상응하는 반면, 정진은 여러 가지가 뒤섞인 심소로서 선심善心과 불선심不善心뿐 아니라, 선도 불선도 아닌 무기심無記心과도 상응합니다. 결과적으로 정진은 건전할 수도 불건전할 수도 또는 중립적일 수도 있습니다. 건전한 노력이란 팔정도八正道 중에서 '바른 노력' 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반면 잘못된 목적을 추구하는 불건전한 노력은 삿된 노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바른 노력만을 하며 정진바라밀과 같이 최상의 수준까지 연마해야 합니다.

바른 노력은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바르지 않은 것인지 선과 불선을 숙고하는 37보리분법의 택법각지擇法覺支와 팔정도의 정견正見의 토대 위에서 작동되어야 합니다. 경전의 주석서들은 불선법을 10불선업도(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욕, 악의, 삿된 견해)와 다섯 가지 장애인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뜸과 걱정, 의심 등을 포함한 14가지로 설명합니다. 한편 선법은 10선업도와 37보리분법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바른 노력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른 노력의 첫 번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이 언제, 어느 곳, 어떤 대상에게도 일

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또는 언제, 어느 곳, 어떤 대상에게도 일어났던 것으로 회상되지 않는 불선법이 이후로도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은 눈 · 귀 · 코 · 혀 · 몸 · 마음 감관을 방호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여섯 감관을 보호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눈으로 색을 볼 때 비구는 단지 그것을 색으로만 파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보인 것의 전체 모습을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다, 이것은 남자다, 이것은 아름답다는 식으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인식들은 번뇌가 일어나도록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안근을 자제하지 않은 채 유쾌한 대상을 본다면 우리에겐 탐욕이 일어날 것입니다. 반면 불쾌한 대상을 보게 되면 마음이 불행해지고 비탄에 빠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불건전한 마음의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념正念을 통해 안근을 억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머지 감관의 문들에 대해서도 억제가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촉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대상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번뇌를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바른 노력의 두 번째, 이미 일어난 악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 실제로 과거에 일어난 적이 있거나 과거에 일어났다가 지나가 버린 악을 없애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악은 이미 사라졌으니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본성상 이전에 일어난 적이 있는 악과 비슷한 악이 새로 일어나면, 그것을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각적 욕구' 에 대처하는 요법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상에 대한 명상입니다. 집착 대상을 고정불변한 것이라 믿는 맹목적 가정이 바로 집착을 떠받치고 있는 지주인데, 이 명상은 그와 같은 가정을 무력화시킵니다.

'관능적 욕망' 이라는 특정 형태의 욕구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몸의 혐오스러운 측면에 대한 명상입니다.

'악의' 에 대한 적절한 치유법은 자애에 대한 명상입니다. 모든 존재의 안녕과 행복을 바라는 애타적 기원을 규칙적으로 방사함으로써 미움과 노여움의 모든 흔적을 씻어낼 수 있는 명상법입니다.

'둔감과 졸림' 을 쫓기 위해서는 밝은 빛을 떠올리거나, 일어서서 한동안 활기차게 행선을 하거나,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는 것 등입니다.

'들뜸과 걱정' 을 가장 효과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는 대상에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호흡의 흐름에 주의를 기울이는 호흡관이 여기서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회의적 의심' 의 경우 특별한 처방은 상세한 검토입니다. 즉 모호한 점들이 분명해질 때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검토 연구하는 것입니다.

산만한 생각을 쫓아내는 다섯 가지 기법 중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이 장애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라면 다음의 네 가지 기법은 모든 장애에 대해 두루 효력이 있는 기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을 버리기 위해 부끄러움과 도덕적 두려움이라는 힘을 동원합니다. 즉 그 생각이 수치스럽고 저열한 것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거나, 그 생각이 가져올 달갑지 않은 결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에 대한 혐오감이 일어나게 하여 결국 그 생각을 몰아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의도적으로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와 반대로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에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에 직면하여 그 성질을 검토하고, 원인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이 가라앉고 결국 사라집니다. 불선한 생각은 마치 도둑과 같아서 모른 체하면 문제를 일으키지만, 잘 살피고 있으면 활동을 그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억누르는 것인데, 이는 최후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땅에 쓰러뜨린 후, 내리눌러서 꼼짝 못 하게 하는 것처럼 불선한 생각을 의지력으로 철저히 제압함으로써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상의 기법들을 능숙하고 분별 있게 적용하면 불선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마치 벌겋게 단 냄비에 떨어지는 몇 방울의 물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듯이 이 불선한 생각을 즉시 몰아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른 노력의 세 번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 또는 언제, 어느 곳, 어느 대상에게도 일어났던 것으로 마음으로 회상할 수 없는 선이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은 칠각지七覺支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칠각지는 마음챙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감관은 마음에 의지하고, 마음은 마음챙김에 의지하며, 마음챙김은 열반에 의지합니다. 마음챙김-택법각지-정진-희열-편안함-집중-평온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바른 노력의 네 번째, 이미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는 선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은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 항상 끊임없이 자신의 수행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진바라밀과 네 가지 바른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37조도품에서 깨달음의 조건들을 말씀하시면서 정진력을 아홉 번이나 언급하십니다. 그만큼 정진력이 중요합니다.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것도 정진력에서 시작하고 수행의 목적지인 넵바나에 도착하게 하는 것도 정진력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노력, 끊임없는 정진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그 노력이 세상의 명예나 이익에 물들지 않은, 생사윤회의 거센 물결을 건너기 위한 숭고한 노력이라면, 필경 그 노력은 금생 혹은 머지않은 생에 여러분을 그 궁극의 목적지로 인도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지막으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당부하노라, 빅쿠들이여!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감사합니다.

코스모스(COSMOS)

도선 / 사교과(3학년)

『코스모스』는 과학 분야의 고전 베스트셀러로 인문학적 시각과 철학적 시각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도서이다. 1980년도에 출판되어 40년간 세계적인 과학 도서로 자리했으며, 20세기의 물리, 천문학의 세계적인 지성인으로 알려진 칼 세이건(Carl Sagan 1934~1996)의 대표작이다.

이 책을 읽으려면 조금의 용기와 시간이 필요한데, 700페이지나 되는 소위 벽돌책(벽돌처럼 두꺼운 책)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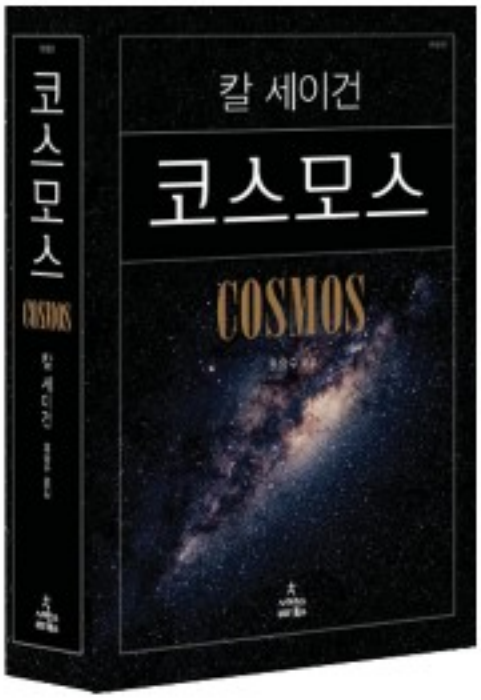
'코스모스' 란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코스모스' 란 단지 꽃이름이 아니라 그리스어로 "우주의 질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무질서와 혼돈을 의미하는 '카오스(chaos)' 와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 과학도서는 불교와 어떤 관련도 없을 것 같지만 불교를 조금이라도 접해 본 사람이 읽게 된다면 불교와 유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불교의 가르침이 과학과 우주의 본질과 동일성을 지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코스모스』는 온 세상의 이야기를 다 담고 있고, 지구의 탄생부터 우주의 기원, 은하의 형성과정, 별들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코스모스』는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자는 독자들이 우주적 관점에서 우리가 상호 연결되어 있는 우주의 일부가 되길 바란다.

이 점은 나에게 불교적 관점과 매우 일치하게 느껴졌으며, 연기적 관점이 떠오르기도 했다.



우리 우주에는 약 1,000억 개의 은하가 있고, 또한 각각의 은하에는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다. 이토록 어마한 별들 중 인류는 아직까지 지구를 제외하고는 다른 생명체의 존재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가끔 우리는 다른 생명체가 산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확신할 수는 없다. 이런 우주에서 우리는 점조차 되지 못한다.

우리는 이런 코스모스에서 나왔고, 우리는 코스모스를 알고자, 변화시키고자 이 자리에 태어났다.

이 책은 "우리는 누구인가?"를 질문한다.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설명하며, 인간들은 우주 생명의 한 구성성분일 뿐임을 알려 준다.

과학탐구는 우리의 존재를 풀 수 있는 실마리일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

지상의 모든 생물들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주의 기본은 원자, 분자들로 이루어졌다. 즉 먼지들로 이루어진 것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티끌인 것이다.

하나가 곧 일체이고 일체가 곧 하나인 것이다.

하지만 고정된 자성은 없고 변천되고 사라질 것이므로 우리는 우주에서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원리를 알 수 있다.

『코스모스』에 따르면 우리는 지구라는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물질 진화의 산물이다.

150억 년의 긴 세월을 거쳐 결국 물질(인류)은 의식을 갖추게 되었다.

인간이 자기파멸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갖춘 존재라는 것은 확신할 수 없지만, 많은 인류가 이를 노력하는 중에서 나는 칼 세이건의 의견처럼 우리 스스로 지구의 모든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하나의 공동체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주에서 내려다본 지구에는 국경이 없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부서질 것만 같은 하나의 창백한 푸른 점일 뿐이다. 별들의 요새와 보루에서 본 지구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디작은 푸른 반점일 뿐이다. 이렇듯 우주에서 바라보는 여행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준다.

인류는 우주의 한구석의 작은 미물과 같지만, 스스로를 인식하는 존재로 진화해왔다.

인류의 생존은 한 사람이 이룩한 업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를 여기 있게 한 "코스모스"에 감사해야 한다.

시간과 공간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 별과 행성과 같은 세계 또한 우리 인간들처럼 생로병사를 겪는다.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미래 후손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또한 "인간의 본질"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준다. 우주에서 자기의 위치를 인식하고 겸손할 것을 말하고 있다.

『코스모스』를 읽으면 읽을수록 불교가 얼마나 과학과 연관되어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과학이 발전되기도 전인 2,600년 전 부처님이 어떻게 이 우주의 진리와 물질의 존재 방식을 알게 되었는지도 궁금했다.

나에겐 완독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책이었지만, 요즘은 이 책이 초등학생 권장도서이기도 하다니 참으로 격세지감이다.

불교를 공부한다면 이 책을 과학적 관점 이외의 불교적 관점으로도 재해석해 보는 것으로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만든 갈등

서로에게 불선不善한 마음만 일으키는 갈등은 가족 간, 직장 내, 친구 또는 연인 사이에서도 늘 존재하는데, 이 갈등의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로 구업口業, 즉 말로써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위아래가 없어."

"요즘 애들은 대책도 없이 제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아."

"아, 저 꼰대 또 시작이야. 도대체 언제 적 얘기야?"

요즘뿐만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만국공통 우리 인류는 세대 간의 갈등과 함께해 왔다. 기성세대는 젊은 층의 눈앞의 행복밖에 모르는 단타적 사고를 보며 사회의 미래를 걱정한다. 아랫세대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른들을 구태로 여기며 자신들의 새로운 가치관을 내세우며 다소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곤 한다. 그러다 보니 상대의 이야기는 더욱더 듣기 싫어지게 되고 세대 간의 간극은 계속 이어지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에게 불선不善한 마음만 일으키는 갈등은 가족 간, 직장 내, 친구 또는 연인 사이에서도 늘 존재하는데, 이 갈등의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로 구업口業, 즉 말로써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느 날 나를 향한 누군가의 태도가 악의적으로 바뀌었을 때, 스스로 잘 되돌아보면 그 이유를 분명 알 수 있다. 다들 한 번쯤은 굳이 할 필요 없었거나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구나 하고 후회한 적이 있을 것이다. 사실이라는 근거로 상대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 소위 '팩트폭격'을 날린 적은 과연 없을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심지어 사실무근인 말로 상대를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간 적은?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 중생들을 위해 일찍이 부처님께서 설해주신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본다.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 그리고 적합한 때에 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1. 사실이 아니고 옳지 않고 이익이 없는 말이 남들에게 사랑스럽지도 않고 마음에 들지도 않으면 그 말을 하지 않는다.
2. 사실이고 옳더라도 이익이 없는 말이 남들에게 사랑스럽지도 않고 마음에 들지도 않으면 그 말을 하지 않는다.
3. 사실이고 옳고 이익이 되는 말이라도 남들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말을 해줄 바른 시기를 안다.
4. 사실이 아니고 옳지 않고 이익이 없는 말은 남들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더라도 하지 않는다.
5. 사실이고 옳더라도 이익이 없는 말은 남들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더라도 하지 않는다.
6. 사실이고 옳고 이익이 되는 말이 남들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면 그 말을 해줄 바른 시기를 안다.[1]

그러나 아무리 말을 지혜롭게 잘 한다 하더라도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어떤 관계에서든, 상대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면 공경심 또한 줄어들 것이며, 그렇게 그를 향한 모든 행동들은 도덕적으로 저열해질 것이며 수순하지 않는 태도는 무척 반항적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아가 관계가 틀어지는 데 영향을 미칠 만한 의도가 나에게 분명 존재할 것임을 모두 숙고해 봐야 한다.

우리 모두 부처님처럼 자비와 연민 가득한 마음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을 부르는 마음을 잘 제어한다면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얽히지 않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

1) 맛지마니까야 58, 「아바야 왕자 경」 中

▲ 오백전 백일기도 입재

▲ 인도성지순례

▲ 추석 다례재

▲ 운문사역사문화관 개관식

▲ 치문 첫논강

- 8월 29일 가을철 개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9월 1일 오백전에서 오백나한 백일기도 입재식이 있었고, 은광 주지 스님의 입재법문이 대웅전에서 있었습니다.
- 9월 13일 가을철 첫 자자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9월 14일 법공양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9월 17일 추석 다례재가 비로전에서 있었습니다.
  학인 스님들은 추석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 9월 20일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법사 스님: 화엄반 법일스님, 사교반 혜석스님, 사집반 현소스님, 치문반 혜념, 혜행스님)
- 9월 21일 치문반 첫 논강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9월 25일 운문사역사문화관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제53회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가 있었습니다. 28회 선배 스님들이 회장단을 맡았고, 모교발전을 위한 토론 및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 9월 28일 조계종 선명상대회에 일진 율주 스님을 비롯한 강사 스님과 대학원 스님, 산내암자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 10월 2일 ~4일 화엄반 스님들의 인도성지순례 원만회향을 발원하는 신중기도가 비로전에서 3일간 있었습니다.
- 10월 2일 동화사에서 승시 법고대회가 있었습니다. 도용 교무 스님 인솔 하에 운문사 학인 스님들이 참여해 대상을 받았습니다.
- 10월 6일 ~21일 화엄반 스님들이 원법 학감 스님 인솔 하에 14박 15일간 인도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 10월 11일 구중일 다례재가 조사전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14일 ~21일 7박 8일간의 가을 휴강이 있었습니다.
- 10월 26일 ~28일 안성두 교수님의 인도불교사상사 특강이 2박 3일간 선열당에서 있었습니다.
- 11월 3일 정토회의 여러 국가에서 오신 출·재가자와 학인 스님들의 간담회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1월 7일 대중 스님들의 독감 예방 접종이 있었습니다.
- 11월 9일 ~10일 경주 황룡원에서 개최된 제77차 동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에 학인 스님들이 참가했습니다.
  은행나무 관람을 위해 이틀간 도량을 개방하였습니다.
- 11월 14일 가을철 종강과 마지막 자자가 청풍료에서 있습니다.

도와주신 분

• 진광 강주 스님 • 준한스님 • 문광스님 부모님 • 김성옥 • 김종미 • 박재철
• 배종옥 • 붓다선원 법등 • 이대유 • 이정숙 • 정해옥 • 조서영
• 조정일(대인경) • 최오현 • 최현숙 • 최희영 • 하옥희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운문편집실)

* 운문지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문자로 다음 정보를 보내 주십시오.
①주소 ②수령인 ③부수 ☎ 010-7403-7118
* 주소록 업데이트를 위해 기존 정기구독자 분들도 편집실로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전사물佛殿四物

법고法鼓

법고는 축생을 비롯한 땅 위에 사는 모든 중생에게 불법을 널리 전하여
번뇌를 물리치고 해탈에 이르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하늘의 법천이 부처님께 간청하시되,
정법正法의 북을 울리시고,
법비[法雨]를 내리시어
중생을 제도하여 주시옵소서."

「법화경 화성유품」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 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운문사에서 사리암 기도영험록을 제작합니다. 사리암 나반 존자님 기도를 통해 가피를 얻은 불자님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054) 372-8800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시스템,
천혜의 자연환경 속 역사문화관 · 수목원을 갖추고 다양한 학인복지 제도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교육수행도량!
운문사승가대학에서는 2025학년도 신 · 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운문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모집대상	사미니, 비구니 스님 및 2025년도 봄 사미니 수계예정자까지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증명사진(장삼 · 만의 착용) 2매(3×4)
모집기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 6일(음력 2월 7일)까지 (우편,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전형방법	서류심사, 면접
준비물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예비소집일	2025년 1월 18일(음력 12월 19일) 오후 3시까지
특전 ›››	• 운문사 내 문수선원 해제철 실참 수행 가능 • 신입생 전원 태블릿 PC 무상 지원, 졸업여행비 지원 • 정기적인 초청 특강 (학인 스님들 요청 반영)

운문사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 · 주지 은광 · 학장 영덕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신입생 모집

모집대상	2025년 봄 구족계 수계예정자 및 비구니 스님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5. 증명사진 2매(3×4)
모집기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 6일(음력 2월 7일)까지
전형방법	서류심사, 면접
준비물	가사, 장삼, 승려증
전형일시	2025년 1월 19일(음력 12월 20일) 오후 2시
특전 ›››	• 학업기간 중 매월 연구비 및 교재 지원 • 각종 장학금 혜택 및 종단 전문 습의사 자격

운문사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명성 · 원감 일진

※ 전화문의 054)372-8800, 054)370-7100 / 운문사 홈페이지 www.unmunsa.or.kr
※ 제출서류는 운문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雲門寺僧伽大學

• 운문지 발행에 사용된 종이는 100% 친환경 재생지입니다.

38368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가을호 · 통권 제169호 · 2024년 11월 14일 발행 · 등록 1995년 3월 29일 · 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 · 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 · 명성(전임호)
고문 · 원법 / 편집 · 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 · 혜견 / 편집위원 · 선재, 명주 / 사진 · 편집부 / 표지사진 · 혜견 / 편집디자인 · 디자인마루 (053)426-3395